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수행문의 메커니즘과
수행동사의 사용가능성
- 독일어 정표화행을 중심으로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어학전공
정 일 미

수행문의 메커니즘과
수행동사의 사용가능성
- 독일어 정표화행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창 우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정 일 미

정일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수행문을 선언문으로 보는 썰의 견해로부터 시작하여 수행문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선언문으로서의 수행문이 갖는 말과 세상의 이중적 일치방향을 개념화하기 위해, 언어행위가 수행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청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하였다.

선언문으로서의 수행문은 청자를 향해 발화되며 그것을 통해 만들려는 새로운 사실은 청자와 관련된 변화이다. 청자와 관련된 변화는 청자의 인지변화 또는 상태변화이다. 수행문을 통해 청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수행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실제 발화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자의 변화는 물리세계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인지적 변화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언문의 이중방향의 일치 가능성은 오직 동사에 달려있다.

수행동사가 될 수 있는 동사의 조건은 첫째, 동사의 의미에 청자와 관련된 전달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달 의도가 없다면 그 동사의 선언적 의도가 없는 것이므로 선언문의 이중길이가 성립할 수조차 없게 된다. 둘째, 동사의 의미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그 발화를 이해시키려는 것 이상 또는 이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제 물리세계에서 순전히 우리의 발화와 동시에 생길 수 있는 사실은 화자가 그 발화를 이해했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이다. 발화로 물리세계 법칙을 벗어나는 사실을 만들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직 제도적 장치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수행동사가 될 수 없는 동사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발화를 이해시키려는 것 이상 또는 이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감정이 개입된다.

본 연구의 설명방식에 따르면 모든 동사는 잠재적으로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현재 수행동사가 아닌 동사도 사회적 요구와 관습에 의해 동사

의 의미가 바뀌어 선언적 의도가 실제 세계에서 변화 가능한 사실을 의도하게 되면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접근방법으로는 수행문의 기제가 설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동사의 사용가능성도 예측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설명방식을 수행가능성 이론 Performabilitätstheorie이라고 명명했다.

본 연구는 수행가능성 이론에 따라 마르텐-클레프의 정표화행 하위유형들에서의 수행동사 및 수행동사 사용가능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첫째, 정표화행이 단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제는 발화의 목적이 청자에게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이해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가에 있었다.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청자가 이해하는 것이 그 언어행위의 수행과 동일하다면, 화자가 정말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둘째, 순전히 감정분출을 목적으로 갖는 발화수반행위는 이론적으로는 그 행위의 결과를 보장받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발화수반행위에는 발화를 통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발화의도를 갖는 모든 발화행위를 발화수반행위로 본다면, 이들 중 발화를 통해 발화목적의 달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 수행동사, 수행문, 정표화행, 발화수반행위, 언어이해, 감정인식

학 번 : 2016-25238

목 차

1. 서 론	1
2. 수행문과 수행동사	3
2.1. 수행문과 수행적 발화의 개념	3
2.2. 수행문의 성립 조건	7
2.2.1. 수행문을 간접화행으로 보는 관점	7
2.2.2. 수행문을 단언화행으로 보는 관점	11
2.2.3. 수행문을 선언화행으로 보는 관점	15
3. 수행문의 메커니즘	20
3.1. 우리는 말로써 무엇을 할 수 없는가?	20
3.2.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22
3.3. 임의의 동사가 수행동사가 될 수 있는 이유	24
3.3.1. 언어적 선언문	24
3.3.2. 언어외적 선언문	26
3.4. 임의의 동사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	28
3.4.1. 선언적 의도가 청자의 감정상태 변화일 때	28
3.4.2. 선언적 의도가 청자의 인지변화가 아닐 때	31
3.5. 수행동사의 사용가능성	35
4. 정표화행의 하위유형	39
4.1. 화행분류의 역사	39
4.2. 감정표현으로서의 정표화행	40
4.3. 마르텐-클레프의 정표화행 하위유형	43

4.4. 각각의 하위유형과 수행동사들	45
5. 정표화행 하위유형의 수행동사 사용가능성 분석	46
5.1. 수행동사가 있는 하위유형	46
5.1.1. GRATULIEREN	46
5.1.2. WÜNSCHEN	46
5.1.3. WILLKOMMEN HEISSEN	47
5.1.4. DANKEN	49
5.1.5. KONDOLIEREN	50
5.1.6. SICH ENTSCULDIGEN	51
5.2. 수행동사는 없지만 화행동사가 있는 하위유형	52
5.2.1. SPOTTEN	52
5.2.2. TRIUMPHIEREN	54
5.2.3. FROHLOCKEN	55
5.2.4. JUBELN	56
5.2.5. KLAGEN	58
5.2.6. SCHIMPFEN	58
5.2.7. KRITTELN	59
5.2.8. JAMMERN	60
5.2.9. FLUCHEN	62
5.3. 수행동사 및 화행동사 자체가 없는 하위유형	63
5.3.1. KOMPLIMENT	63
5.3.2. GUNSTERWEIS	65
5.3.3. ANTIPATISCHER WUNSCH	67
5.3.4. HOFFNUNG ÄUSSERN	69
5.3.5. BEDAUERN BEKUNDEN	71
5.3.6. SORGE BEKUNDEN	73
5.3.7. ANGST ÄUSSERN	74
5.4. 분석 결과	75

6. 결론	78
참고문헌	80
Zusammenfassung	82

도 식 목 차

[도식 1] 의사소통 메커니즘	20
[도식 2] 발화와 이해	22
[도식 3] 동사 versprech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25
[도식 4] 동사 verurteil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27
[도식 5] 동사 beleidig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30
[도식 6] 동사 prahl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33
[도식 7] 동사 andeut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35
[도식 8] 수행문의 메커니즘	36
[도식 9] 마르텐-클레프(1991)의 정표화행 하위분류	44
[도식 10] 수행동사 유무에 따른 하위유형의 구분	45

그 립 목 차

[그림 1] Schallverarbeitung durch Außen- und Innenohr sowie das Gehirn.	32
---	----

1. 서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공상과학영화에만 나올 것 같았던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인공지능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고 하거나 에어컨을 특정 온도로 맞추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과 대화하고 컴퓨터와 채팅을 한다. 존 쉘이 그의 ‘차이니즈 룸 Chinese Room’ 사고실험을 통해 논쟁의 불을 지폈던 “인공지능은 과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자연어이해(NLU)기술을 통해 받은 긍정적인 답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나머지 반이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감정인식이라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스틴과 쉘에 의해 시작된 화행이론의 역사는 우리가 언어로 행위를 한다는 통찰에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말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정표화행은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감정 자체의 표현(발산)’이 목적인가 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청자가 화자의 언어행위를 이해하는가, 아니면 화자의 감정 자체를 인식하는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표화행의 언어행위 이해와 감정 인식 문제를 수행동사의 메커니즘을 통해 고찰한다. 원래 수행동사의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 화행이론과 역사를 같이 해온 난해한 퍼즐이다. 존 쉘은 “수행문이라는 개념이 철학자들과 언어학자들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개념이라서 누군가는 분명히 만족할 만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¹⁾고 까지 말한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다양한 수행문 이론이 존재한다.

다음 2장에서는 수행문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이론들이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지금까지 제안된 수행문

1) The notion of a performative is one that philosophers and linguists are so comfortable with that one gets the impression that somebody must have a satisfactory theory." (Searle 1989: 535)

이론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수행문의 기제를 밝힌다. 4장에서는 분석의 자료로 쓸 마르텐-클레프의 정표화행 하위유형의 분류방법과 유형들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방법을 기반으로 정표화행의 개별 하위유형들의 수행동사 및 수행동사 사용가능성을 분석한다.

2. 수행문과 수행동사

2.1. 수행문과 수행적 발화의 개념

‘Performativ(수행적)’라는 단어와 개념은 오스틴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져 도입되었다. 영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perform*(수행하다)’이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졌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오스틴은 처음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performatory*’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려고 했으나, ‘더 짧고²⁾, 덜 이상하게 생겼고, 다루기 쉽다’는 이유로 ‘*performative*’를 사용하게 된다. 그는 이 개념을 ‘*constative/descriptive*(서술적)’라는 개념에 상반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때까지 철학의 중심 논점은 진술문의 참과 거짓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점의 배경은 언어는 오로지 ‘세상에 대해 말하는 데’ 쓰인다는 선입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철학자인 오스틴은 어떤 진술문은 참도 거짓도 아니며, 또한 사실을 묘사하거나 보고하거나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화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임을 관찰하게 된다.

- (1) Ich vermache dir mein Haus. (나는 너에게 내 집을 유산으로 남긴다.)
- (2) Ich wette fünfzig Euro, dass es morgen regnen wird. (나는 내일 비가 온다는데 50유로를 건다.)
- (3) Ich verspreche dir, dass ich morgen komme. (나는 내일 온다고 너에게 약속한다.)

화자는 (1)을 발화함으로써 청자에게 집을 유산으로 주고, (2)를 발화함으로써 내기를 하며, (3)을 발화함으로써는 약속을 한다. 이들 모두는

2) Austin(1969: 13), 흔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형태인 ‘*performatives*’는 확실히 ‘*performatories*’보다 짧다.

어떤 사실이 만들어지는 행위들이다. 오스틴은 이러한 문장이나 발화들을 ‘수행문 performative Sätze’ 또는 ‘수행적 발화 performative Äußerungen’라고 칭한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인 ‘서술문 konstative Sätze’ 또는 ‘서술적 발화 konstative Äußerungen’는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이며, 그 진술은 항상 참 또는 거짓이다.

(4) Jonathan ist heute krank. (요나단은 오늘 아프다.)

(5) Thomas hat zwei Brüder. (토마스는 형제가 두 명 있다.)

(6) Deutschland liegt in Europa. (독일은 유럽에 있다.)

(4)-(6)은 모두 서술문이며 참 또는 거짓과 관련된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하는 발화가 반드시 (1)-(3)의 형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내일 오겠다는 약속은 (3) Ich verspreche dir, dass ich morgen komme과 같은 발화뿐만이 아니라, 아래 (7)과 같은 발화로도 할 수 있다.

(7) Ich komme morgen. (내일 올게.)

또한, (8) 대신 (9)와 같은 발화로도 경고를 할 수 있다.

(8) Ich warne dich, dass das Eis dünn ist. (나는 너에게 얼음이 얇다고 경고한다.)

(9) Das Eis ist dünn. (얼음이 얇다.)

수행적인 발화와 서술적인 발화를 구분하려던 오스틴은 이제 수행적 발화 안에서도 이처럼 다시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1)~(3), (8)에서처럼, 수행하려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일인칭 단

수 직설법 현재의 형식으로 그 문장에 존재함으로써 그 행위를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발화를 ‘명시적 수행 발화 explizit performative Äußerungen’라고 칭한다. 그리고 (7), (9)처럼, 그 발화를 통해 어떤 행위가 수행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표시가 없는 발화를 ‘함축적 발화 primäre (implizite)³⁾ Äußerungen’로 구분한다.

하지만 오스틴의 이러한 구분은 곧 어려움에 부딪힌다. 모든 함축적 수행발화는 서술적 발화의 특징들을 갖기 때문에 이들 간의 구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9)의 경고하기 같은 수행적 발화는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 더구나 (4)~(6)의 서술적 발화는, 아래와 같은 명시적 수행발화의 함축적 발화로 볼 수 있다.

- (4') Ich stelle fest, dass Jonathan heute krank ist. (나는 요나단이 오늘 아프다고 단언한다.)
- (5') Ich stelle fest, dass Thomas zwei Brüder hat. (나는 토마스에게 형제가 두 명 있다고 단언한다.)
- (6') Ich stelle fest, dass Deutschland in Europa liegt. (나는 독일이 유럽에 있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단언/확언하기도 약속하기도 경고하기도 마찬가지로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 발화도 수행적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모든 발화는 수행적이기 때문에⁴⁾, 오스틴은 ‘수행적performativ’이라는 개념이 발화 또는 문장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로써 이 개념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수행적’ 개념은 아직 ‘명시적 수행발화’와 ‘함축적 수행발화’를 구분하는 개념으로는 쓰일 수 있기에 오늘날에는 이 분류를 위해 사용되

3) Austin(1969: 75), 오스틴은 inexplicit나 implicit보다 primary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4) Searle(1989: 536), 썰에 의하면, 모든 발화는 정확히 말해 a performace(수행)이지, performative(수행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performative’라는 개념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특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수행하려는 행위를 명명하는 동사가 그 발화문에 존재하면 명시적 수행발화이고, 명명동사가 없으면 함축적 수행 발화인데, 어떤 발화수반행위가 그 언어행위를 명명하는 동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특징이기 때문에, 명시적 수행발화의 이러한 특징에 ‘수행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시적 수행발화’에 쓰인 ‘수행동사’가 항상 ‘수행적’인 것은 아니다.

(10) Ich verspreche dir (hiermit)⁵⁾, dass ich morgen komme. (나는 내일 온다고 (이것으로써) 너에게 약속한다.)

(11) Ich verspreche dir (jeden Morgen), dass ich morgen komme. (나는 내일 온다고 (매일 아침) 너에게 약속하곤 한다.)

(10)과 (11)은 외형적 또는 문법적으로 동일함에도 (10)은 내일 오겠다는 약속이 ‘수행’되었고, (11)은 약속하는 행위가 ‘진술’되었다. (10)의 경우는 수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11)은 수행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10)에 있는 ‘versprechen’는 수행적이지만, (11)의 ‘versprechen’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오직 (10)만 수행문으로, 그리고 오직 (10)의 versprechen만 수행동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versprechen을 수행동사라고 부를 때에는 오직 그것이 수행문에서 수행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임을 함축한다.

수행문의 특별성은 다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발화수반행위는 명시적 수행문을 발화했을 때 수행이 되는데, 또 어떤 발화수반행위는 명시적 수행문을 발화함으로써 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들을 보자.

5) (10)의 (hiermit)과 (11)의 (jeden Morgen)은 두 문장의 의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삽입된 것이며, 실제 발화에서 (10)과 (11)은 외형적으로 동일하다.

(13) Ich beleidige dich. (나는 너를 모욕한다.)

(14) Ich bedrohe dich. (나는 너를 협박한다.)

(15) Ich belästige dich. (나는 너를 성가시게 한다.)

(13~(15)의 발화를 가지고는 각각 모욕하기, 위협하기, 괴롭히기 행위가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수행문이 아니다.

2.2. 수행문의 성립 조건⁶⁾

앞에서 우리는 명시적 수행발화에서는 특정 발화수반행위가 그 언어 행위를 명명하는 동사에 의해 수행됨을 보았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사실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고 축어적으로 말함으로써 그 동사가 명명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문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언어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퍼즐조각⁷⁾이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문장이 어떻게 수행적일 수도 있고 비수행적일수도 있을까?’ 그리고 ‘왜 어떤 동사는 수행동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난해한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몇 가지 접근방식을 소개할 것이다.

2.2.1. 수행문을 간접화행으로 보는 관점

6) 철학과 언어학 분야에서는 ‘how performatives work?’라는 질문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7) Searle(1989: 538), Harnish(2007)는 이 문제를 퍼즐조각(puzzle)에 비유한다.

이 접근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행문은 원래 참 또는 거짓을 서술하는 konstativ 평범한 평서문이며 수행적 힘은 간접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바흐/하니쉬(Bach/Harnish, 1979)는 표준화된 간접성 이론 Standardisierte Indirektheit Theorie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의사소통 이론 이론이기도 하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가 축어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비축어적으로 말할 때, 즉 간접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들은 여기서 이 후자가 바로 수행적 발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 (1) a. Ich fordere Sie auf, zu gehen. (나는 당신에게 가라고 요구한다.)
- b. Ich fordere Sie (hiermit) auf, zu gehen.(나는 당신에게 가라고 (이것으로써) 요구한다)
- c. Ich fordere Sie (jeden Tag) auf, zu gehen.(나는 당신에게 가라고 (매일) 요구하곤 한다)

- (2) a. Ich verspreche dir, dass ich morgen komme. (나는 내일 온다고 너에게 약속한다.)
- b. Ich verspreche dir (hiermit), dass ich morgen komme.(나는 내일 온다고 (이것으로써) 너에게 약속한다)
- c. Ich verspreche dir (jeden Tag), dass ich morgen komme.(나는 내일 온다고 (매일) 너에게 약속하곤 한다)

에서 (1a)는 일차적으로 primär는 요구(1b), 이차적으로 sekundär는 단언(1c)이 될 수 있고, (2a)는 일차적으로는 약속(2b), 이차적으로는 단언(2c)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접화행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경우,

(2) Können(Kannst)/Wollen(Willst) Sie(du) + VP?

와 같은 형태들이 표준화되어 standardisiert 있는 것처럼, 수행문도 'Ich VERB, dass p' 형태로 표준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흐/하니쉬(1979: 208)에 따르면 화자가 발화한 수행문에 대해 청자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추론할 수 있고, 또한 추론하도록 (화자에 의해) 의도될 수 있다고 한다.

1. Er sagt: "Ich fordere Sie auf zu gehen." (그가, "나는 당신에게 가라고 요구한다"라고 말한다.)
2. Er stellt fest, dass er mich auffordern, zu gehen. (그는 그나에게 가라고 요구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3. Wenn diese Feststellung wahr ist, dann muss er mich auffordern, zu gehen. (이 단언이 참이라면, 그는 나에게 가라고 요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4. Wenn er mich auffordert zu gehen, dann muss es seine Äußerung sein, die eine Aufforderung darstellt (was könnte es sonst sein?) (그가 나에게 가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요구를 표현하는 그의 발화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엇이겠는가?)
5. Vermutlich spricht er die Wahrheit. (아마도 그는 참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6. Daher hat er durch die Aussage, dass er mich auffordert hat zu gehen, mich aufgefordert zu gehen. (그러므로 그는 그나에게 가라고 한다는 발언을 통해 나에게 가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마이바우어(Meibauer, 2001)는 이 추론과정의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증명되었어야만 하는 것인 "er stellt fest (그는 단언한다)"가 마치 기정사실로 바로 가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 지적한다. 또한, 이 추론과정은 쉘(1989)에 의해 비판을 받는데, 그는 이와 같은 추론과정으로는 수행적 말화와 그렇지 않은 말화⁸⁾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의 또 한 가지 약점은 왜 그러한 표준화된 형태, 즉 *Ich VERB, dass p*를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쉘(1982: 65ff)의 경우는 간접화행을 설명하면서 화행과 관습적 간접화행간의 관계를 소위 일반화(Verallgemeinerungen)를 통해 성립시킨다.⁹⁾ 예를 들어 직접화행 및 요구에 대한 도입조건은 ‘청자는 A를 할 능력이 있다’인데, 화자는 도입조건에 따라 청자가 A를 할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거나(3a)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3b) 이들 화행을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3) a. Kannst du mir das Salz reichen? (소금을 건네줄 수 있겠니?)
 b. Du könntest ein bißchen leiser sein. (네가 좀 조용할 수 있을 텐데.)

마이바우어(2001)는 바흐/하니쉬의 이론에서는 수행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의 의미와 문장유형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확증된 개념이 없음을 지적

8) 쉘은 앞서 소개한 바흐/하니쉬(1979)의 추론 6단계에서 "Ich fordere Sie auf zu gehen."자리에 "Ich bin der König von Spanien"을 치환해 놓고 비교하였다(Searle, 1989: 543).

9)다음은 쉘이 설명하는 4가지 일반화이다.

일반화 1: S는 h를 할 수 있는 H의 능력과 관련된 도입조건이 충족되는지 질문하거나 그것이 충족된다고 단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Direktiv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화 2: S는 명제적 내용조건이 충족되는지 묻거나, 그것이 충족된다고 단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Direktiv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화 3: S는 성실성조건이 충족된다고 단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Direktiv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충족되는지 질문함으로써는 할 수 없다.

일반화 4: S는 h를 수행하기 위한 좋은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거나,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단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Direktiv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유가 H가 h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면, S는 H가 h를 할 것인지 (단언할 수는 없고) 질문만 할 수 있다.

하는데, 이는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행문을 설명하려는 모든 이론들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할 개념이기도 하다.

비르비쉬(Bierwisch, 1980)의 견해도 이 이론과는 반대 입장인데, 그는 청자가 명시적 수행문과 서술적 단언문을 추론 없이 혼동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간접화행적 접근은 무엇보다 왜 어떤 동사는 수행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어떤 동사는 수행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2.2.2. 수행문을 단언화행으로 보는 관점

오스틴에 대한 지넷(Ginet, 1979)의 비판은 신랄하다. 그는 오스틴이 명시적 수행문을 ‘수행적으로 발화하는 경우’와 ‘진술적으로 발화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수행문을 수행적으로 만드는 것은 ‘특정 동사구를 그것에 의해 표시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언어관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각 수행동사들에 상응하는 수만큼의 관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지넷은 단지 명시적 수행문의 수행성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의도를 갖는 모든 동사들을 대상으로 왜 오직 특정한 의도 동사들만 수행적이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답은 수행문은 진술문이며, 그것으로써 그 행위를 한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동사가 특정 상황에서 수행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그 동사의 서술적 의도 *deskriptive Meinung*¹⁰⁾가 그 행위 Akt를 한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넷에 의하면, 의도를 갖는 동사들에 의해 표시된 모든 행위들은 발화행위

10) Ginet(1979: 246), 지넷은 이것을 ‘그 동사가 표시하는 행위의 성질(nature)’이라고 설명하는데, *descriptive meaning*에서의 *meaning*은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언어행동의 의도에 더 가깝다.

Äußerungsakt를 갖는데 그 발화행위에는 그 동사들이 부여한 충족조건들이 있다. 만일 발화를 하는 것이 또한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 조건들은 그 발화에 의해 충족되어야만 하므로, 그 동사가 표시하는 행위의 성질은 그 발화행위에 의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상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5개의 범주로 나타낼 수 있다.

- 1) Stage setting (무대 장치)
- 2) Form der Äußerung (발화 형식)
- 3) Konsequenz der Äußerung (발화 결과)
- 4) Äußere Beziehungen der Äußerung mit Ausnahme ihrer Konsequenz (그것의 결과 이외의 발화의 외적 관계)
- 5) Absichten hinsichtlich der Konsequenz der Äußerung (발화 결과에 대한 의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도동사에 의해 표시된 많은 행위들은, 예를 들어, 심판이 선수에게 아웃을 선언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가 갖춰진 후에야 일어날 수 있고, 어떤 행위들은 오직 특정한 형태의 발화를 함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발화영향동사들의 경우들은 특정한 종류의 결과를 가질 때만 일어날 수 있으며, *predict*와 같은 행위들은 그 행위자체만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명제가 참이 되어야 함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동사에 의해 표시된 행위의 행위자는 반드시 그 발화가 특정한 결과를 갖도록 의도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 화자가 ‘내일 아침에 올게(Ich verspreche morgen zu kommen)’라고 한다면, 그는 명백히 청자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끔 의도하는 발화를 하는 것이다. 지넷은 만일 의도동사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한다는 진술에 의해 충족되어 진다면, 이 동사는 수행적이 된다고 한다. 즉 적절한 상황문맥이 그 행위가 요구하는 무대장치를 제공해주고, 그 행위의 성질

이 요구하는 발화형식이 수행문 형식을 따르고, 그 행위의 본질이 요구하는 외적 관계를 그 문장의 발화가 갖고 있고, 그 행위에서 요구되는 목표들의 모든 내용이 그 동사에 의해 함축되고, 그리고 청자에게 그 행위를 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바라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러한 의도동사는 수행적이 된다는 것이다.

비르비쉬(1980: 15)도 수행문을 진술문으로 보는데, 그는 명시적 수행문의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술문 구조의 진리조건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상호작용설정과 의사소통의미를 규정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면, 명시적 수행발화는 오직 그것이 참일 때에만 그것의 발화의미 utterance meaning에 명시된 의사소통적 의미 sense를 가진다. 역으로 명시적 수행발화로 오직 진리만 말할 수 있다.

쉴은 원래 수행문이 단언화행이라는 관점에서 그 기제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후에 선언화행의 관점으로 방향을 바꿨다. 후자는 2.2.3에서 다룰 것이다. 쉴(1989)이 모든 수행문 이론에서 필수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수행문의 특징¹¹⁾은 다음과 같다.

- 1) 수행적 발화는 그 문장의 주요동사에 의해 명명된 행위의 수행이다.
- 2) 수행적 발화는 수행되는 행위 유형에 대해 화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불성실할 수도, 실수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자기-보장적 self-guaranteeing이다.
- 3) 수행적 발화는 발화되는 문장의 축어적 의미에 의해 1)과 2)의 특징을 얻는다.

그래서 쉴은 예를 들어, p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의미의 자기-지시적 self-referential 진술¹²⁾(Ich verspreche, dass p)을 한다는 사실이 p라

11) Searle(1989: 539), 쉴은 모두 8개의 타당성조건 CONDITION OF ADEQUACY를 소개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1)-(3) 만을 인용하였다.

12) 예를 들어, 내가 “나는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지시적

는 약속을 하려는 의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만, 어떤 발화가 약속행위라고 자기-지시적으로 단언하는 그 발화의 의도는 약속을 하려는 의도가 그 발화에 존재함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단언은 화자가 참이라고 믿는 명제를 진술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 뿐, 거기에서는 그 명제가 참이라거나 그것이 참이 되도록 의도된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자기-지시적) 단언은 사실 화자로 하여금 그 의도의 존재에 개입 *commitment* 하려는 하지만, 그 의도를 가지는 것에 대한 개입은 그 의도가 실제로 있음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깨닫고 분석 방향을 바꾼다¹³⁾.

반면에 콘도라브디/라우어(Condoravdi/Lauer(2011), Condoravdi(2013), Lauer(2015))는 썰이 단언적 설명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수행문의 단언적 분석은 화자가 실제 의도(예, 약속 및 명령 의도)를 갖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단언에서 자기-보장적 (Self-verifying) 특징을 끌어낼 수 있음을 논리형식으로 증명하기 위해 수행동사인 *claim*, *promise*, *order*¹⁴⁾가 포함된 수행문의 진리값을 분석하였다. 이 동사들은 모두 의사소통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구체적 사실(*concrete particular*)로 이해하고, 모든 의사소통 상황 *u*를 행위자인 화자와 실행시간(*Laufzeit*)을 갖는 특별한 문맥 *c(u)*와 연관시켰다. 위의 세 개 동사 각각의 경우에서 증명해야 할 것은, 명시적 수행동사를 갖는 문장 *S*의 발화가 자기-보장적이라는 것인데, 만일 *u*가 세계 *w*에서 문장 *S*의 발화라면, 어떠한 세계 *w*에 대해서도 그 세계는 그 문장의 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w \in \llbracket S \rrbracket$ 가 되어야 한다. 이들의 분석은 명시적 수행문은, 썰의 주장대로, 실제로 자기-보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썰의 분석과는 달리, 수행문의 기제가 ‘자기-지시적인’ 단언문이라는 가정 없이도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에 의하면 수행문의 동사들이 수행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동사들이 의사소통 사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의

이다.

13) 즉, 단언은 수행적 발화의 자기-보장적 특징을 만들어 낼 수 없다.

14) 각각 ASSERTIVES, COMMISSIVES, DIRECTIVES를 대표한다.

진리조건 내용이 완전히 화자의 책무적 commitment 측면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insult, annoy 등의 동사는 화자의 책무와 관련 없는 부가적인 것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기-보장성을 못 가진다고 한다.¹⁵⁾

2.2.3. 수행문을 선언화행으로 보는 관점

쉴/반더베켄(Searle/Vanderveken, 1985: 3)은, 수행적 발화는 선언문이며 화자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수행동사에 의해 명명된 발화수반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선언문의 명제내용이라고 주장한다.¹⁶⁾

(1) Ich erkläre Sie nun zu Mann und Frau.(나는 당신들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2) Ich erkläre die Sitzung für vertagt. (나는 휴정을 선언합니다.)

(1), (2)처럼, 선언문의 특징은 그것의 명제내용에 의해 표현된 상황을 실제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인데, 명제내용으로서의 수행문은 화자가 어떤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화자는 수행문을 발화함으로써 그 행동을 수행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인 선언문이 된다.

예를 들어 Ich verspreche, dass p라는 문장은, 쉴/반더베켄에 의하면, 선언문의 명제내용이다. 이를 완전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5) They have entailments that are not about commitments, which block selfverification. (Laurer, 2015)

16) Searle(1989: 540), 쉴은 그의 저서 Speech Acts(1969)에서 performative prefix를 단지 문장발화의 발화수반력을 명시적으로 만들어 주는 발화수반지시체라고만 주장했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주장이었으며, 이것의 (선언문의) 명제내용으로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그의 설명을 완성하려고 한다.

(3) Ich erkläre, dass ich verspreche morgen zu kommen.(나는 내가 내일 온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한다.)

선언문에서는 명제내용이 항상 사실(참)이다. 즉 (3)에서, ‘Ich verspreche morgen zu kommen(나는 내일 온다고 약속한다)’은 항상 사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약속을 의도적으로 어기든, 실수로 잊어버리든, 사고로 못 지키든, ‘내가 약속을 했다’는 것은 언제나 사실이다. 그러므로 ‘Ich verspreche morgen zu kommen’은 선언문의 명제내용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약속화행이 수행되는 ‘Ich werde morgen kommen(내일 올게)’도 선언문의 명제내용이 될 수 있을까?

(4) Ich erkläre, dass Ich morgen kommen werde. (나는 내가 내일 온다고 선언한다.)

(4)에서, ‘Ich werde morgen kommen’은 항상 사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어길 수도 있고, 실수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고로 못 지킬 수도 있다. 즉, (4)의 명제내용은 항상 사실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4)는 선언문이 될 수 없고, ‘Ich werde morgen kommen’도 선언문의 명제내용이 될 수 없다. 쉘은 수행문의 이 같은 특성을 ‘자기-보장적 selbst-garantierend’이라고 부른다.¹⁷⁾

이제 쉘(1989)은 모든 수행문은 선언문이라는 전제 하에, “수행문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한다. 그가 세운 전략은, 먼저 선언문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분석하여 원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선언문이 어떻게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그것은 단지 적절한 문장의 축어적 발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필요로 한다.

17) 이로써 앞서 2.2.2장에서 언급된 쉘이 제시한 타당성조건 CONDITION OF ADEQUACY 중 자기-보장성이 입증되었다.

- i) 언어외적 제도
- ii) 화자, 그리고 때로는 청자의 특별한 제도적 신분
- iii) 특정한 축어적 문장이 특정한 선언문의 수행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관습
- iv) 그러한 문장의 발화에서 자신의 발화가 선언적 위상을 가지며 그것이 명제내용에 상응하는 사실을 만들어 낸다는 화자의 의도

그런데 선언문에서는 제도적 사실(전쟁, 결혼, 휴정)이 새로운 사실로 만들어지는 반면, 수행문의 경우에 화자는 약속, 요구, 진술 등의 언어적 사실, 즉 화행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만들어 낸다. 이 점에서 쉘은 화행 이론에서 다루어 왔던 기존의 선언문을 언어외적 선언문 *Außersprachliche Deklaration*으로, 그리고 수행문에 의해 수행되는 선언문을 언어적 선언문 *Sprachliche Deklaration*으로 구분한다.¹⁸⁾ 그런데 언어적 선언문의 경우 언어외적 제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선언문이 성립될 수 있는데, 쉘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언어적 선언문에서 새로 만들어진 사실은 언어적 사실이고 언어 자체가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동시에 화자에게 약속이나, 요구와 같은 선언문을 수행하는 권한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¹⁹⁾ 결국, 언어적 선언문은 발화되는 문장의 축어적 의미만으로 화자가 그러한 선언문을 수행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문장의 축어적 의미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쉘은 축어적 의미만으로도 선언문이 수행될 수 있게 해주는 문장의 속성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그에 의하면,

- a. 세상에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의도를 표명 *Manifestation*하는 것만으로 그 행위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행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

18) 그러므로 모든 수행적 발화는 선언문이지만, 모든 선언문이 수행적 발화인 것은 아니다. 쉘은 물론 이들이 모두 화행이라는 의미에서는 둘 다 언어적 선언문이라고 한다. (Searle, 1989: 549)

19) "it is sufficient to empower speakers to perform such declarations..." (Searle, 1989: 549)

행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b. 세상에는 자기 의미의 일부분으로 의도의 개념을 갖는 동사들이 있으며, 그 동사에 의해 명명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의도적으로만 할 수 있다(예, 약속을 비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
- c. 세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 *über sich selbst sein*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작동하는 *an sich selbst operieren*, 소위 자기-지시적이기도 하고 수행적 *executive*이기도 한 축어적 발화가 있다.

썰은 언어적 선언문의 명제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와 더불어 수행동사에는 발화가 그 동사에 의해 명명된 행위의 수행이 되게 하는 특별한 의미적 속성은 없으며, 선언문이 수행되는 것과 수행되지 않는 것은 순전히 자연적 사실이라고 한다. 마치 신이 빛이 있으라고 선언했을 때,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의 표명이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그것을 명명하는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그 의도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그 언어적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썰에 따르면 수행문은 단언으로도 수행적으로도 발화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 화자의 의도가 다르다. 단언적 발화에서의 의도는 그 문장의미를 진술하는 것이지만, 수행적, 즉 선언적 발화에서의 의도는 그 발화의미가 사실이 되게 하는 것, 즉 발화가 그 동사에 의해 명명된 수행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수행문을 선언문으로 보는 썰의 관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수행문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지시성’을 도입한 것은 잉여적이라는 점에서는 콘도라브디/라우어와 같은 입장이다. 썰의 설명은 선언문으로서의 수행문의 이중적 일치방향을 명확히 개념화하지 못했으며 선언문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실을 ‘언어행위가 수행됐다’로 보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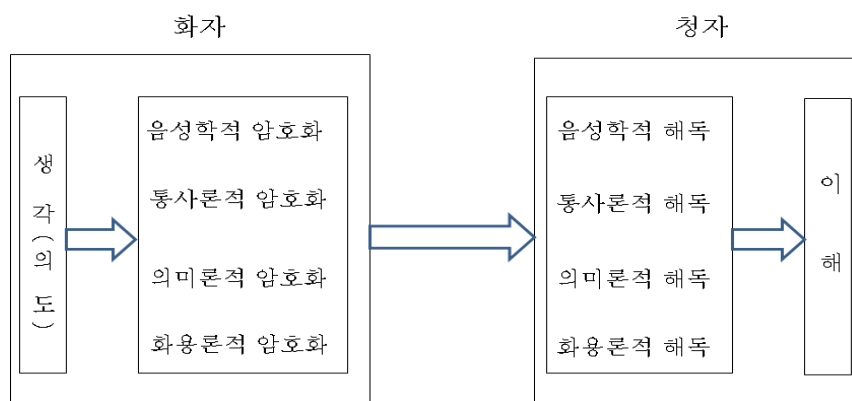
했지만, 언어행위가 수행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청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지 못했다. 다음 장에서는 수행문이 선언문이라는 관점을 고수하면서, 썰이 놓쳤던 부분을 보완하여 수행문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3. 수행문의 메커니즘

3.1. 우리는 말로써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쉘이 수행문의 기제를 설명하면서 놓친 것을 1) 선언문으로서의 수행문이 갖는 이중적 일치방향을 명확히 개념화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2) 언어행위가 수행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청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오스틴이 ‘말로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How to do things with words?)’라는 질문과 함께 화행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이래로, 세상의 관심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되어왔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화행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퍼즐인 수행적 발화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무시되고 있었다.

우선 인간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은 의사소통 모델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식 1. 의사소통 메커니즘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및 화용적으로 암호화하여 발화하면, 청자는 그것을 다시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및 화용적으로 해독하여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 메커니즘의 모든 과정이 결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화행이론에서 화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쉘(1969)은 화행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5가지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중 ‘정상적인 입력과 출력 조건’이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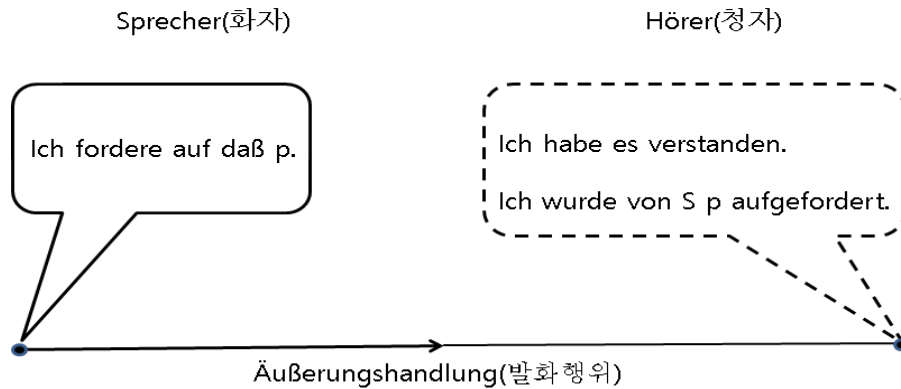
- 1) 정상적인 입력과 출력 조건
- 2) 명제적 내용 조건
- 3) 도입조건
- 4) 성실성 조건
- 5) 본질적 조건

1)은 화자와 청자가 청각 장애, 소음, 육체적 및 정신적 결함 등에 의해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발화세계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청자가 화자의 발화 및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자가 약속의 의도로 어떤 문장을 발화했을 때, 청자가 그 문장에 암호화된 모든 것을 해독하여 축어적 의미 및 화자의 의도를 이해해야만 약속이 수행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화자가 요구의 의도로 문장을 발화했을 때, 청자가 그 문장의 축어적 의미 및 화자의 의도를 이해해야만 요구 AUFFORDERN가 수행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요구가 수행되었다(AUFFORDERN wurde ausgeführt)²⁰⁾는 것은 ‘청자가 요구를 이해했다(H hat es verstanden)’는 것과 동일하다. 둘은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청자가 요구를 이해했다(H hat es verstanden)’는 것은 결과적으로 화자에 의해 p가 청자에게 요구

20) 독일어의 수동태는 werden 동사 + p.p. 로 만든다. 반면에 sein 동사 + p.p.는 상태를 나타낸다.

되었다(H_{DAT} wurde durch S aufgefordert)는 것과는 동일하다.



도식 2. 발화와 이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구가 수행되었다는 것은 요구가 들어졌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요구화행의 충족조건이다. 의사소통 모델로 설명되는 발화는 철저하게 물리적인 세계이다. ' $H_{(Dat)}$ wurde von S es aufgefordert'는 화자의 요구행위를 청자가 이해했다는 것뿐이며, 그 요구대로 할지 안 할지는 화자의 의지에 달렸다. 결국 물리세계에서 우리가 발화행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는 기껏해야 청자의 인지변화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청자가 이해했다는 것은 청자의 인지가 변화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3.2.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앞에서 이 연구는 수행문을 선언문으로 보는 쉘의 견해에 동의하고 그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선언화행은 a) 명제를 발화함으로써 그 명제내용이 사실이 되도록 의도하는 것과, b) 그 의도대로 세계가 변화해서 그 명제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다. 만일 그것이 의도하는 대로 실제로 세계가 변화되면 선언화행은 수행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a)를 선언적 의도 Deklarative Intention, b)를 실제 변화된 세계라고 부르겠다.

먼저, 선언적 의도는 ‘변화된 세계’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세계 안에서 변화는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없었던 존재가 생겨나거나, 원래의 상태와는 다른 상태가 되거나, 아직 하지 않았던 행위가 이미 한 행위(완료)가 되는 경우이다. 각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i) 존재변화: 신이 만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고 말한다면, 이는 “I declare that there is light! (나는 빛이 있음을 선언하노라!)”로 환원되는데, 이 때 명제내용은 ‘there is light(빛이 있다)’이다. 신은 이 선언적 발화를 통해 이 명제내용이 사실이 되도록 의도했고 - 빛이 있으라!(let there be light!)²¹⁾ - 그 의도대로 이 전에는 없었던 빛이 생기게 되었다.
- ii) 상태변화: 의장이 “The meeting is adjourned! (휴정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I declare that the meeting is adjourned. (나는 휴정임을 선언합니다.)”로 환원된다. 그는 이 선언적 발화를 통해 명제내용이 사실이 되도록 의도했고²²⁾ 그 의도대로 회의의 상태가 ‘회의 중’에서 ‘휴정’이 되었다.
- iii) 행위변화: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변화는 망치질하기, 달리기, 요리하기 등의 신체적인 행위의 완료가 아니라 언어행위의 완료에 제한된다. 화자가 “Ich verspreche, dass p. (나는 p라고 약속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Ich erkläre, dass ich verspreche dass p. (나는 p라고 약속한다고 선언한다.)”로 환원된다. 그는 이 선언적

21)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신에게 있어서는 지시화행이 항상 그것의 충족조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22) 이것을 마치 신이 그랬던 것처럼 ‘let the meeting be adjourned!’라고 명령문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발화를 통해 명제내용이 사실이 되도록 의도하는데, 이는 약속이라는 행위가 이미 수행된 세계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즉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VERSPRECHEN wurde ausgeführt. (약속하기가 수행되었다.)

이것을 다시 청자 중심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H_{DAT} wurde von S p versprochen. (청자에게 p가 약속되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iii) 행위변화의 의도와 그 결과인 실제 변화된 세계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임의의 동사가 어떻게 수행동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겠다.

3.3. 임의의 동사가 수행동사가 될 수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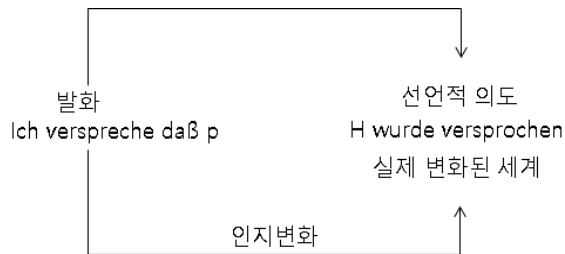
3.3.1. 언어적 선언문

선언문 “Ich verspreche, dass p.”의 선언적 의도는 (1) VERSPRECHEN wurde ausgeführt(약속하기가 수행되었다)이자 동시에 (2) H_{DAT} wurde von S p versprochen(청자에게 p가 약속되었다)이다. 발화가 끝났을 때 그 의도대로 세계가 변했다면 이 선언화행은 수행되는 것이다.

이제 실제 발화 세계를 보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인과관계가 작용하는 물리적 세계이고, 3.1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발화로 청자에게 인지변화(H hat es verstanden)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Ich verspreche, dass p. (나는 p라고 약속한다.)”라고 발화했을 때 올바른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는 동시에 그것을 이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청

자에게 약속이 되었다(H wurde versprochen)', 즉 선언적 의도 (2)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범위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 선언화행은 수행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언문으로서의 명시적 수행문인 'Ich verspreche, dass p'가 수행적일 수 있는 이유이고 동사 'versprechen'이 수행동사일 수 있는 이유이다.

(3) versprechen: 선언적 의도 (H_{DAT} wurde versprochen) = 실제 변화된 세계 (H_{DAT} wurde versprochen)



도식3. 동사 versprech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우리가 말로 실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청자의 인지변화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행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사의 선언적 의도가 오직 청자의 인지변화만을 의도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선언적 의도가 오직 청자의 인지변화만을 의도하는 동사는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동사 auffordern과 behaupten에도 같은 식으로 선언적 의도와 실제로 변화된 세계를 대입해 볼 수 있다.

(4) auffordern: 선언적 의도 (H wurde aufgefordert) = 실제 변화된 세계 (H hat es verstanden/ H wurde aufgefordert)

(5) behaupten: 선언적 의도 (H_{DAT} wurde behauptet) = 실제 변화된 세계 (H hat es verstanden/ H_{DAT} wurde behauptet)

그리고 그 결과는 versprechen 동사에서와 동일하다.²³⁾ 이처럼 선언적 의도가 청자의 인지변화이고, 그 결과 실제로 변화된 세계와 일치하는 선언문은 쉴리 분류한 ‘언어적 선언문’과 일치한다.

3.3.2. 언어외적 선언문

그런데 3.3.1에서와는 달리 선언적 의도가 청자의 인지변화를 넘어 상태변화까지 확장되더라도 선언문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Ich verurteile zum Tode!(나는 사형을 내린다!)²⁴⁾”라고 말한다면, 이는 “Ich erkläre, dass ich zum Tode verurteile. (나는 사형을 내린다고 선언하노라.)”로 환원된다. 이 선언적 발화에서 화자의 선언적 의도는 다음과 같이 청자를 사형수로 만드는 것이다.

(1) VERURTEILEN wurde ausgeführt. (판결하기가 수행되었다.)

(2) H ist der zum Tode Verurteilte. (청자는 사형수이다.)

즉 화자는 청자의 인지변화를 넘어 상태변화를 의도했다. 물론 발화가 끝났을 때 그 의도대로 세계가 변했다면 그와 동시에 이 선언화행도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변화된 세계에서 판사가 “Ich verurteile zum Tode”라고 발화했을 때, 피고인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이해함과 동시에

23) versprechen, auffordern, behaupten은 각각 영어 동사 promise, order, claim에 해당하고, 동시에 각각 위임화행, 지시화행, 단언화행을 대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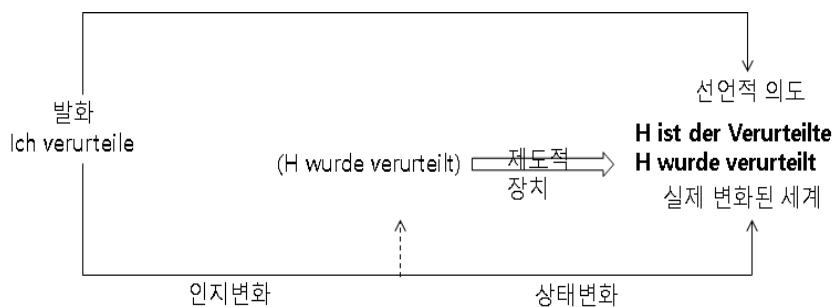
24) 물론 실제로는 “Zum Tode verurteilt!”처럼 수동태로 말해 질 것이다.

사형수가 된다. 즉,

(3) H wurde zum Tode verurteilt. (청자에게 사형이 내려졌다.)

는 (2)의 H ist der zum Tode Verurteilte(청자는 사형수다)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판사의 발화는 실제세계에서 피고인의 상태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이 선언화행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3.1에서 확인한 것처럼, 물리적 발화세계에서는 우리의 발화만으로 청자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만약 발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발화로써 청자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사형선고를 내리면 그 즉시 판결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 제도적 장치로 보장이 되므로, 피고인은 사형수가 된다. 이것이 선언문으로서의 명시적 수행문인 'Ich verurteile'가 수행적일 수 있는 이유이고 동사 'verurteilen'이 수행동사일 수 있는 이유이다. 이처럼 선언적 의도가 상태변화를 의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의 도움을 얻어 실제 변화된 세계와 일치하는 선언문은 썰이 분류한 언어외적 선언문과 일치한다.

(4) verurteilen: 선언적 의도 (H ist der Verurteilte) = 실제 변화된 세계
(H wurde verurteilt = H ist der Verurteilte)



도식 4. 동사 verurteil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동사 ernennen의 경우에는 적절한 제도적 틀 안에서 화자가 'Ich ernenne Sie zum Botschafter(당신을 대사로 임명합니다)'라고 발화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의 선언적 의도는 청자가 대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5) ERNENNEN wurde ausgeführt. (임명하기가 수행되었다.)

(6) H ist der Botschafter. (청자는 대사이다.)

이다. 이때 화자는 청자의 인지변화를 넘어 상태변화를 의도했고, 실제 발화 세계에서는 적절한 제도적 틀 안에서 화자가 "Ich ernenne Sie zum Botschafter"라고 발화를 하면, 청자는 화자가 임명하는 행위를 이해함과 동시에 대사가 된다. 즉,

(7) ernennen: 선언적 의도 (H ist der Botschaft) = 실제 변화된 세계
(H wurde ernannt = H ist der Botschaft)

동사 feuern에도 같은 식으로 선언적 의도와 실제로 변화된 세계를 대입해 볼 수 있다.

(5) feuern: 선언적 의도(H ist der Arbeitslose) = 실제 변화된 세계(H wurde gefeuert = H ist der Arbeitslose)

그리고 그 결과는 위와 동일하다.²⁵⁾

25) feuern, ernennen, verurteilen은 각각 영어 동사 fire, appoint, sentence에 해당한다.

3.4. 임의의 동사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

3.4.1. 선언적 의도가 청자의 인지변화와 더불어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려 할 때

이제 수행동사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화자가 “Ich beleidige dich! (나는 너를 모욕한다!)”²⁶⁾라고 말한다면, 이는 “Ich erkläre, dass ich dich beleidige. (나는 너를 모욕한다고 선언한다.)”로 환원된다. 화자는 이 선언적 발화를 통해 명제내용이 사실이 되도록 의도하는데, 이것은 모욕하기라는 행위가 이미 수행된 세계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3.2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 (1) BELEIDIGEN wurde ausgeführt. (모욕하기가 수행되었다.)
- (2) H wurde von S beleidigt. (청자는 모욕을 당했다.)

가 되어야 한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2)는 동사 beleidigen의 의미가 갖는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2)는 모욕하는 행위를 이해했다는 뜻인데, 누군가를 모욕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모욕하는 행위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어 상대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 선언문의 선언적 의도는 ‘모욕행위가 수행되는 것’을 넘어 ‘청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까지 확장된다. 즉, 화자가 정말로 의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3) BELEIDIGEN hatte Wirkung. (모욕하기가 효과가 있었다.)
- (4) H ist beleidigt. (청자가 모욕감을 느낀다.)

26) 헤링어는 beleidigen의 3대 성립요건으로 Ernsthaftigkeit, Objektivität, Adressiertheit를 제시한다. Beleidigung(모욕)은 이처럼 성립요건이 까다로우어서 beleidigen이라는 발화내용을 통해서만은 완성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Heringer, 2002: 305ff).

물론 발화가 끝났을 때 그 의도대로 세계가 변했다면 그와 동시에 이 선언화행도 수행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변화된 세계를 의사소통 모델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발화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청자에게 인지변화를 가져오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Ich beleidige”라고 발화했을 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변화시킨 세계에서는 화자가 (2)처럼, 단지 모욕하는 자신의 행위를 청자에게 이해시켰을 뿐이다. 즉 ‘청자는 모욕을 당했을(H wurde beleidigt.)’ 뿐이다. 하지만 확장된 선언적 의도인 ‘청자가 모욕감을 느끼는 것(H ist beleidigt)’은 오직 우연적인 결과로만 가능하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언화행은 수행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Ich beleidige dich’는, 마치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빛이 생기게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선언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선언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Ich beleidige dich’가 선언문도 명시적 수행문도 될 수 없는 이유이고, 동사 ‘beleidigen’이 수행동사일 수 없는 이유이다.

(3) beleidigen: 선언적 의도(H ist beleidigt) ≠ 실제 변화된 세계(H wurde beleidigt)



도식 5. 동사 beleidig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 세계에서 우리의 발화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청자의 변화는 인지변화 뿐이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청자의 신분이나 직업적 상태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변화시킬 수 있음을 3.3.2.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청자의 감정 상태는 그러한 제도의 도움을 얻는다 해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선언적 의도에 청자의 감정적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동사는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동사 *bedrohen*과 *belästigen*은 각각 ‘청자가 위협을 느끼게(H ist bedroht)’ 하고, ‘청자가 성가시게 느끼게(H ist belästigt)’ 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만, 실제 세계에서 화자의 발화에 의해 청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오직 우연적인 사건이다. 이들 동사의 결과는 *beleidigen* 동사에서와 동일하다.²⁷⁾

(4) *bedrohen*: 선언적 의도 (H ist bedroht) ≠ 실제 변화된 세계
(H wurde bedroht)

(5) *belästigen*: 선언적 의도 (H ist belästigt) ≠ 실제 변화된 세계
(H wurde belästigt)

3.4.2. 선언적 의도가 청자의 인지변화가 아닐 때

화자가 “Ich prahle mit meinen Erfolgen. (나는 내 성공을 자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Ich erkläre, dass ich mit meinen Erfolgen prahle.(나는 내 성공을 자랑한다고 선언한다.)”로 환원된다. 이 선언적 발화가 성공하려면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1) *Prahlen wurde ausgeführt.* (자랑하기가 수행되었다.)

(2) *H_{DAT} wurde geprahlt.* (청자에게 자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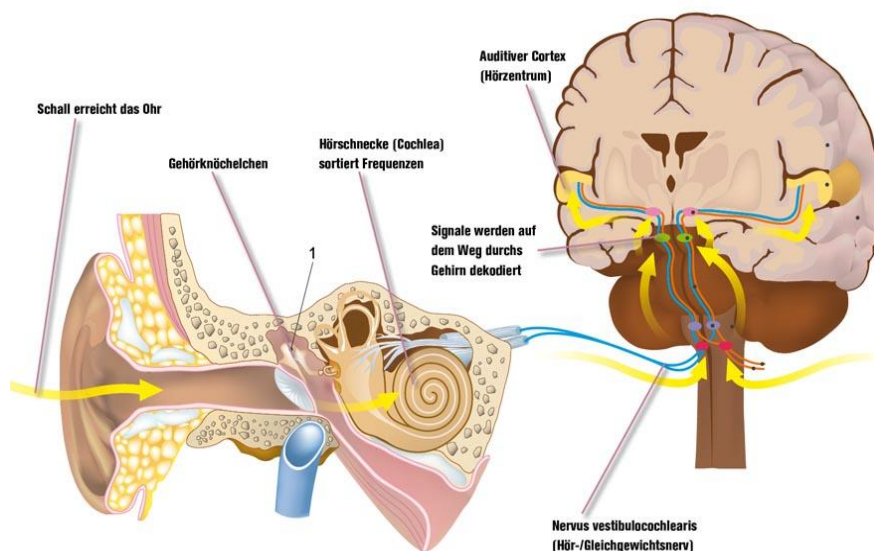
27) 여기에서 예로 쓰인 *beleidigen*, *bedrohen*, *belästigen*은 각각 영어에서의 *insult*, *threaten*, *annoy*에 해당한다.

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랑한다는 것은 청자에게 단지 그 행위를 이해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화자의 자랑하는 감정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의 선언적 의도는 (3)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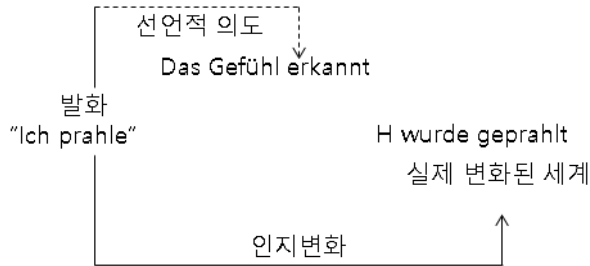
(3) H hat das Gefühl von Prahlen erkannt. (청자가 화자의 자랑감정을 인식했다.)

물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는 화자가 자랑하는 ‘행위’는 이해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로봇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발화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그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 물론 인간은 로봇과는 다르게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의 자랑하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으로서 이 발화만으로는 보장받지 못한다.²⁸⁾ 결국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선

28) 앞서 3.1장을 통해 본 연구는 물리세계에서 우리가 발화행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는 기껏해야 청자의 인지변화임을 밝혔다. 그런데 ‘청자의 인지변화’의 범위는 더 제한될 필요가 있다.



언화행은 수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Ich prahle’는 선언문도, 명시적 수행문도 될 수 없고, prahl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도식 6. 동사 prahl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임의의 동사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화자가 “Ich deute an, dass p. (나는 p라고 암시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Ich erkläre, dass ich andeute, dass p.(나는 p라고 암시한다고 선언한다.)”로

그림 1: Schallverarbeitung durch Außen- und Innenohr sowie das Gehirn.

(출처: Schäfer, H./Simon, U (2017))

의사소통상황에서 청자의 청각세포는 자극을 암호화된 형태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높은 음은 높은 자극진동수를 갖고 낮은 음은 그 반대이다. 뇌는 소리의 진동수를 유도성 신경섬유로 인지하는데, 이제 자극은 달팽이관핵에서 뇌로 유입된 후 먼저 뇌간에 이른다. 그리고 여기에서 뇌는 화자의 발화를 내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 말한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해독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언어신호는 뇌의 주변영역에서도 가공이 되는데 이 영역은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 감정에 관련된 신호를 평가한다. 이 영역에서는 우리는 객관적인 이해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언어의 내용적 이해에 추가적 정보는 줄 수 있어도 필수적이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정에서 청자가 이해한 것은 언어적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제한한다. 다시 말해 물리적 발화 세계에서 청자가 이해한 것은 ‘화자의 언어행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발화세계에서 우리가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청자의 인지변화를 가져오는 것뿐이다. 그 외의 것은 물리적 세계에서 보장받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발화로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이해시킬 수도, 청자가 특정 감정을 가지게 할 수도 없다. 그런 것들은 우연적인 결과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환원된다. 이 선언적 발화가 성공하려면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1) ANDEUTEN wurde ausgeführt. (암시하기가 수행되었다.)

(2) H_{DAT} wurde von S p angedeutet. (청자에게 p가 암시되었다.)

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암시하기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전에서 andeuten의 의미를 찾아보면, ‘직접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청자에게 p가 암시되었다는 것은 p가 ‘직접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즉, 선언적 의도는 (3)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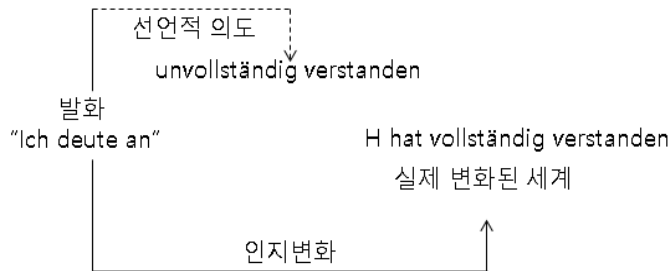
(3) H_{DAT} wurde p nicht direkt und unvollständig ausgeführt.(청자에게 p가 직접적이지 않고 불완전하게 진술되었다.)

그런데 의사소통 메커니즘의 모든 과정이 결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화행이론에서 화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그 결과, 화자가 “Ich deute an, dass p”라고 발화할 때, 화자는 물리적으로 결함 없이 발화를 해야 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는 (4)처럼 그 발화를 결함 없이 이해했다.

(4) H_{DAT} wurde p direkt und vollständig ausgeführt.(청자에게 p가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진술되었다.)

그러므로 화자는 ‘Ich deute an, dass p’라고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발화하면서 동시에 청자에게 직접적이지 않고 불완전하게 이해되기를 의도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범위 밖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 선언화행은 수행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Ich deute an, dass p’는 선언문도, 명시적 수행문도 될 수 없고, andeut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 (5) andeuten: 선언적 의도(H wurde angedeutet/H hat unvollständig verstanden) ≠ 실제 변화된 세계(H wurde nicht angedeutet/H hat vollständig verstanden)



도식 7. 동사 andeuten의 선언적 의도와 실제 변화된 세계

3.5. 수행동사의 사용가능성

이 절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몇 가지 기존 용어들의 정의를 제한하고 또한 몇 가지 새로운 용어들을 정의내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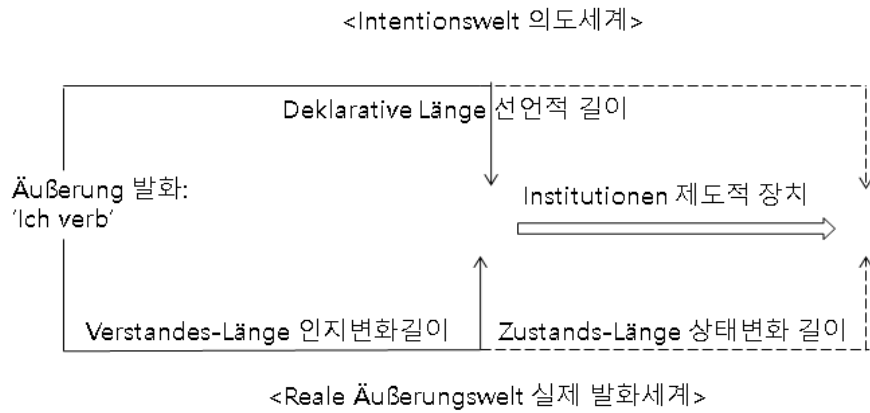
- i) 어떤 발화수반행위가 그 발화행위유형을 명명하는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을 때, 오직 그러한 문장과 그러한 발화와 그러한 동사를 각각 수행문, 수행적 발화, 수행동사라 한다.
- ii) 어떤 발화수반행위가 그 발화행위유형을 명명하는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수행될 수 없을 때, 그러한 문장, 발화, 동사를 각각 비수행문, 비수행적 발화, 비수행동사라 한다.
- iii) 수행문은 선언문이며, 비수행문은 잠재적인 선언문이다.
- iv) 선언문과 잠재적 선언문은 선언적 의도를 갖는데, 이것은 청자와 관련하여 ‘변화된 세계’를 의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의도를 ‘선언적 길이 Deklarative Länge라고 부를 것이다.

v) 실제발화세계에서 화자의 발화행위만으로 청자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청자가 물리적 의사소통 메커니즘에 따라 그 발화를 이해했다는 사실, 즉 청자의 인지변화뿐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발화 세계에서의 인지변화영역을 인지변화길이 Verstandes-Länge²⁹⁾라고 부른다.

vi) 실제발화세계에서 화자의 발화로 청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오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발화 세계에서의 상태변화영역을 상태변화길이 Zustands-Länge³⁰⁾라고 부른다.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수행문 및 비수행문의 기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8. 수행문의 메커니즘

- 1) 선언적 길이는 동사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 2) 동사의미에 청자의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만들 의도가 포함

29) 독일어 명사 Verstand(이해)에서 착안하였다

30) 독일어 명사 Zustand(상태)에서 착안하였다.

- 되지 않는 경우, 그 동사의 선언적 길이는 0이다. 예) 5.3장의 frohlocken, jubeln, jammern, fluchen을 참조하라
- 3) 선언적 의도는 ‘변화된 세계’를 의도하는 것이다. 세계 안에서의 변화는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없었던 존재가 생겨나거나, 원래의 상태와는 다른 상태가 되거나, 아직 하지 않았던 행위가 이미 한 행위(완료)가 되는 경우이다.
- 4) 실제 변화된 길이는 실제 발화세계에서 화자의 발화로 유발된 청자의 변화이며, 순전한 물리적 발화 과정에서는 청자의 인지변화 Verstandes-Länge까지만 가능하지만, 제도적 장치에 의해 상태변화 Zustands-Länge까지 확장될 수 있다.
- 5) 선언적 길이 = 실제 변화된 길이: 이 경우는 선언문이며, 그러므로 명시적 수행발화가 수행된다. 5)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 5-1) 선언적 길이 = 인지변화길이 Verstandes-Länge: 이 경우는 언어적 선언문이며 이는 명시적 수행문에 해당한다. 예) versprechen, auffordern, behaupten
- 5-2) 선언적 길이 = 인지변화길이 Verstandes-Länge + 상태변화길이 Zustands-Länge: 이 경우는 언어외적 선언문, 즉 일반적인 선언화행에 해당한다. 예) verurteilen, feuern, ernennen
- 6) 선언적 길이 \neq 실제 변화된 길이: 이 경우는 비선언문이며, 그러므로 명시적 수행발화가 수행되지 않는 비수행문이다. 6)은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 6-1) 선언적 길이 > 실제 변화된 길이: 청자의 감정상태를 변화시키려는 동사의 의미에 의해 선언적 길이가 의해 확장되어 인지변화길이 + 상태변화길이가 되었으나 이것과 일치하도록 실제 변화된 길이를 확장시켜줄 제도적 장치는 불가능하다. 예) beleidigen, bedrohen, belästigen
- 6-2) 선언적 길이 < 실제 변화된 길이: 청자에게 화자의 감정을 인식시키려고 하거나 불완전하게 인지를 변화시키려는 동사의 의미에 의해 선언적 길이가 청자의 인지변화길이에 못 미친다. 예) prahlen,

andeuten

- 7) 6-1)의 경우, 선언적 길이 자체가 줄어들어 인지변화길이를 가지게 되면 수행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관습에 의해 동사의 의미가 바뀌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정리된 수행문 및 비수행문의 기제에 대한 설명을 이 연구에서는 수행가능성 이론 Performabilitätstheorie이라 부를 것인데, 왜냐하면 이 이론을 가지고 수행동사의 사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이론이 기존의 수행문이론들과 특별히 차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6-1)과 같은 경우에, 동사의 의미가 바뀌어 선언적 길이가 인지변화길이가 줄어들었다면 이 발화는 선언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동사의 의미가 바뀌면 모든 동사는 수행동사로 사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 이론은 주장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요구에 의해 특정한 관습적인 언어행위가 생겨났을 때, 특정 동사가 수행동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음 장에서는 관습이 동사의 수행가능성에, 즉 동사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표화행의 하위유형들을 통해 살펴보겠다.

4. 정표화행과 하위유형

4.1. 화행분류의 역사

앞서 2.1장에서는 수행적인 발화와 서술적인 발화를 구분하려던 오스틴의 시도를 살펴보았다. 오스틴은 더 나아가 언어행위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³¹⁾ 이것이 화행이론의 시초가 된다. 그의 뒤를 이은 쉘은 오스틴의 분류에는 일관된 분류 기준이 없을뿐더러 그의 분류는 발화수반행위가 아닌 단순히 화행동사의 분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화행분류를 위한 12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인 ‘발화목적’, ‘심리적 태도’, ‘말과 사태의 일치 방향’을 이용하여 언어행위를 단언화행 Assertiva³²⁾, 지시화행 Direktiva, 위임화행 Kommissiva, 정표화행 Expressiva, 선언화행 Deklarativa의 5가지 기본화행유형으로 분류한다. 쉘 이후에도 기본화행을 분류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³³⁾ 이들 대부분은 오스틴과 쉘의 분류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행의 기본화행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잇는 다음 시도는 기존의 각 기본화행에 대한 하위분류였다. 특히 독일 뮌스터대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쉘의 지시화행³⁴⁾, 단언화행³⁵⁾, 위임화행³⁶⁾, 정표화행³⁷⁾에 대한 하위분류가 시도되었는데, 이들은 쉘이 제시한 분류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31) Verdictives, Exercitives, Commissives, Expositives, Behabitives (Austin, 1962)

32) 이 명칭은 처음에는 Representatives(Searle,1976)였으나, 나중에 Assertives(Searle, 1979)로 수정되었다.

33) Vedler(1972), Fraser(1974), McCawley(1977), Bach&Harnish(1979), Leech(1983) 등

34) Hindelang(1978)이 하위분류하였다. AUFFORDERN. Die Untertypen des Aufforderns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35) Rolf(1983)가 하위분류하였다. SPRACHLICHE INFORMATIONSHANDLUNGEN.

36) Graffe(1990)가 하위분류 하였다. SICH FESTLEGEN und VERPFLICHTEN. Die Untertypen kommissiver Sprechakte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37) Marten-Cleef(1991)가 하위분류하였다. GEFÜHLE AUSDRÜCKEN, Die expressiven Sprechakte

더 다양한 화행유형을 분류하고자 개별 화행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분류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쉘의 다섯 가지 기본화행에 대한 하위분류도 이루어졌는데, 힌데랑(Hindelang, 1981)의 경우 쉘의 지시화행에 포함되어 있던 질문화행을 앞서 출판한 그의 요구화행 Aufforderung 하위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따로 분리해서 하위분류하였다.³⁸⁾ 또한 칠리히(Zillig, 1982)는 쉘의 기본화행에서는 단언화행 혹은 정표화행으로 구분되던 평가화행을 따로 분리하여 하위분류하였다.³⁹⁾

4.2. 감정표현으로서의 정표화행

최초로 언어행위 분류를 시도한 오스틴의 5개 기본화행유형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행태화행 Behabitives은 쉘의 정표화행에 상응한다. 그는 이 유형을 “태도와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매우 악명 높은 유형 a very miscellaneous group”⁴⁰⁾으로 소개하는데, 이것은 이 유형을 구성하는 행위들(apologizing, congratulating, commending, condoling, cursing, challenging 등)이 하나의 집단이라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오스틴은 이 집단의 특징을 “다른 사람의 행동과 운(fortunes)에 대한 화자의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이 집단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다고 서술하거나 stating 기술하는 것 describing,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분출한다는 의미에서의 표현하는 것 expressing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라고 한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오스틴은 감정분출을 위한 ‘언어사용’은 발화수반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의 사용’ 개념을 발화수반행위나 발화영향행위보다 더 포괄적 개념으로 본다. 예를 들

38) Hindelang(1981) Zur Klassifikation der Fragenhandlungen

39) Zillig(1982), BEWERTEN, Sprechakttypen der bewertenden Rede.

40) Austin(1962: 152)

어, 농담을 하거나 시를 쓰거나 연극을 하면서 “가서 별을 따와” 라고 말한다면, 이 말화는 “진지하지 않고 not serious”, “완전히 일반적이지는 않은 not fully normal“ ”기생적인 parasite” 언어사용이며 발화수반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언어행위이다. 감정분출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화를 덜기위해 사용하는 ‘욕하기’는 발화수반행위가 아니며, 그 증거로 ‘욕하기’는 명시적 수행발화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운다. 오스틴에게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을 따르는 것처럼 수행되는 행위 an act done as conforming to a convention”이고, 오직 이러한 발화수반행위들만 명시적 수행형식을 갖는다. 그 결과 오스틴의 기본 화행분류에는 감정을 분출하는 언어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스틴의 화행분류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화행분류기준에 의한 새로운 분류를 시도한 쉘(1976)의 정표화행 EXPRESSIVA 유형에도 감정을 분출하는 언어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쉘은 정표화행의 정의에서 이것의 발화수반 목적이 화자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제시한 예들(thank, congratulate, apologize, condole, deplore, welcome)은 모두 사회 관습적인 행위들에 속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그 때마다의 상황에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지 화자가 실제로 그러한 심리상태를 갖고 있느냐는 본질적이지 않다.

정표화행의 사회관습적 특징은 힌데랑(1978:66)의 의례행위 Ritualia 부류에서 더 강조된다. 힌데랑은 쉘의 정표화행 예시들을 고려하여 인사의례행위 BEGEGNUNGS-RITUALIA, 감사의례행위 DANKES-RITUALIA, 사과 의례행위 ENTSCULDIGUNGS-RITUALIA, 기원의례행위 WUNSCH - RITUALIA, 축하의례행위 GRATULATIONS-RITUALIA, 애도행위 KONDOLIEREN, 의례적 위로행위 RITUELLER TROST, 의례적 훈계행위 RITUELLE ERMAHNUNGEN를 만들어 고찰한다.

그렇다면 정표화행의 발화목적인 감정표현은 오직 사회 관습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인가? 개인적인 감정분출은 정표화행의 발화목적이 될

수 없을까? 같은 맥락에서 욕하기, 한탄하기 등의 언어행위는 오스틴의 견해처럼 관습적인 행위, 즉 발화수반행위가 아닌 것일까?

마르텐-클레프(Marten-Cleef)는 이 문제와 관련해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관점을 인용한다. 비트겐슈타인은 고통과 같은 원초적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들의 사용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관습에 의해 학습되고 결국 이들의 표현은 고통이라는 심리상태의 묘사가 아닌 고통행위 자체가 됨을 강조한다.⁴¹⁾ 감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인간은 기쁨, 두려움 등을 특징짓는 표현들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획득한다. 마르텐-클레프는 비트겐슈타인의 설명에서 감정발화는 오스틴의 주장대로 ‘기생적인(parasite)’ 언어현상이 아니라 관습적 언어수단이며 정표적 언어행위라는 확신을 얻는다. 물론 여기에서의 감정발화는 화자의 정서적 분출을 의미하며 그것의 기능은 카타르시스, 즉 내적인 감정동요로부터의 자유이다.

언어의 카타르시스 기능과 관련해서는 카인츠(Kainz, 1962)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카인츠는 “강하게 동요하는 감정이 말소리와 단어의 의미를 갖는 발화를 함으로써 정화될 수 있으며, 그것은 그러한 발음의 카타르시스적 작용에 달려있다”⁴²⁾고 한다. 이 경우 의사소통 상대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설령 아무도 듣지 않을지라도 감정분출은 이루어질 수 있다.

카인츠와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힘입어 마르텐-클레프는 오스틴의 행태화행의 정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즉 오스틴에게 있어서 발화수반행위로서의 감정표현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운fortunes에 대한 화자의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 표현”에 제한되었던 반면,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는 화자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41) Wittgenstein(1977: § 244), in Marten-Cleef(1991: 36)

42) Kainz(1962: 193), in Marten-Cleef(1991: 39)

4.3. 마르텐-클레프의 정표화행 하위유형⁴³⁾

본 연구는 정표화행에서 사용되는 수행동사 및 수행동사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마르텐-클레프(1991)가 분류한 정표화행하위유형들을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마르텐-클레프의 정표화행 하위분류 방법론과 개별하위유형들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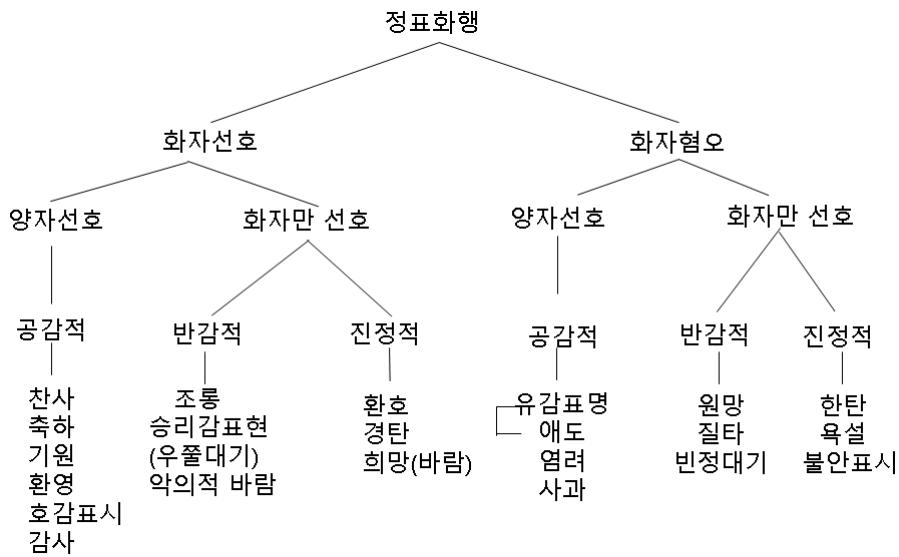
마르텐-클레프(1991)는 하위분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 (1) A.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평가
 - a. 선호적이다
 - b. 혐오적이다
- B. 사태에 대한 선호나 혐오가
 - a. 화자에게만 있다
 - b.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있다
- C.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이
 - a. 공감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 b. 반감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 c. 감정적 흥분을 발산하기 위함이다

먼저, 1차 분류기준 (1.A)에서는 화자가 특정 사태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화자 선호적 mit Sprecher-Präferenz’ 유형과 ‘화자 혐오적 mit Sprecher-Aversion’ 유형으로 구분한다. 2차 분류기준인 (1.B)에서는 앞선 두 유형 각각에 대해 청자도 같은 가치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각각 ‘양자 선호 beidseitige Präferenz’ 유형, ‘화자만 선호 mit Sprecher-Präferenz’ 유형, ‘양자 혐오 beidseitige Aversion’

43)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마르텐-클레프의 전문용어들은 이혜용(2015)의 번역을 빌려왔음을 밝힌다.

유형, 그리고 ‘화자만 혐오 mit Sprecher-Aversion’ 유형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이 네 유형들은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이 자신이 청자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청자와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화자 자신의 감정적 흥분을 발산하기 위함인지에 따라 각각 ‘공감적 정표화행 Sympathisierende EXPRESSIVA’, ‘반감적 정표화행 Opponierende EXPRESSIVA’, ‘진정적 정표화행 Abreagierende EXPRESSIVA’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얻은 여섯 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 일반적인 및 특수한 행위 의미, 화자와 청자의 역할, 감정의 동기, 기반이 되는 감정의 종류 등을 적용해 총 21개의 하위유형을 제시하였다.



도식 9. 마르텐-클레프(1991)의 정표화행 하위분류

마르텐-클레프(1991)의 하위분류기준 중 특히 3차 분류기준은 화자의 발화 의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4.4 각각의 하위유형과 수행동사들

4.3장에서 소개하였던 것처럼, 마르텐-클레프(1991)는 정표화행을 모두 21개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유감표명화행과 애도화행은 동정표명화행(MITLEIDBEKUNDEN) 아래에 하나로 묶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을 각각 분리해서 고려하였는데, 왜냐하면 전자는 수행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후자는 수행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마르텐-클레프(1991)의 22개 하위유형에서의 수행동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마르텐-클레프(1991)는 바람화행을 덕담화행(GUTER WUNSCH)과 악담화행(ANTIPATISCHER WUNSCH)으로 표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동사 wünschen의 의미를 긍정적인 바람으로 보고, 전자는 기원화행(WÜNSCHEN), 후자는 악담화행(ANTIPATISCHER WUNSCH)으로 표시하고 분석하였다.

각 하위유형은 수행동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는 화행동사로 명명되었는지 아니면 명사적 표현으로 명명되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행동사 유무	있음	없음	
화행명명 방법	수행동사(6)	화행동사(9)	명사적 표현(7)
하위 유형	GRATULIEREN WÜNSCHEN WILLKOMMEN HEISSEN DANKEN KONDOLIEREN SICH ENTSCHULDIGEN	FROHLOCKEN JUBELN SPOTTEN TRIUMPHIEREN KLAGEN SCHIMPFFEN KRITTELN JAMMERN FLUCHEN,	KOMPLIMENT GUNSTERWEIS ANTIPATHISCHE WUNSCH HOFFNUNG ÄUSSERN BEDAUERN BEKUNDEN SORGE BEKUNDEN ANGST ÄUSSERN

도식 10. 수행동사 유무에 따른 하위유형의 구분

5. 정표화행 하위유형의 수행동사 사용가능성

이장에서는 3장에서 소개한 수행가능성 이론 Performabilitätstheorie 을 사용하여 정표화행의 각 하위유형들의 수행동사 및 수행동사 사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5.1. 수행동사가 있는 하위유형

5.1.1. GRATULIEREN(축하화행)

축하화행은 청자가 과거나 현재 당면한 기쁜 일을 화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청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축하화행에서 사용되는 동사 gratulieren/beglückwünschen을 사용해 “Ich gratuliere dir/beglückwünsche dich zum Geburtstag!”이라고 말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는 축하하기라는 행위가 이미 수행된 세계를 의도하는 것이며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 (1) GRATULIEREN wurde ausgeführt. (축하하기가 수행되었다.)
- (2) H_{DAT} wurde von S gratuliert. (청자에게 축하되었다.)

가 된다. 그리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가 화자의 축하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H wurde gratuliert (청자가 축하받았다)’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된 길이가 일치하므로 이것은 선언문이고 gratulieren/beglückwünsch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 (3) gratulier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Verstandes-Länge)
- (4) beglückwünsch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

5.1.2. WÜNSCHEN(기원화행)⁴⁴⁾

축하화행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공감을 청자에게 표현하는 행위인 반면, 기원화행은 청자에게 미래의 무사건강을 바라는 행위이다.

기원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wünschen을 사용해 “Ich wünsche dir alles Gute/gute Besserung/guten Appetit.” 라고 말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는 기원하기라는 행위가 이미 수행된 세계를 의도하는 것이며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1) WÜNSCHEN wurde ausgeführt. (기원하기가 수행되었다.)

(2) H_{DAT} wurde gewünscht. (청자에게 기원이 되었다.)

가 된다. 그리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가 화자의 기원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H_{DAT} wurde gewünscht (청자에게 기원이 되었다)’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된 길이가 일치하므로 이것은 선언문이고 wünsch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3) wünsch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Verstandes-Länge)

5.1.3. WILLKOMMEN HEISSEN(환영화행)

44) 마르텐-클레프(1991)는 바람화행을 덕담화행(GUTER WUNSCH)와 악담화행(ANTIPATISCHER WUNSCH)으로 표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동사 wünschen의 의미를 긍정적인 바람으로 보고, 전자는 WÜNSCHEN, 후자는 ANTIPATISCHER WUNSCH로 표시한다.

환영화행은 청자의 방문이나 수혜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느끼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이것의 하위유형으로는 JEMANDEN WILLKOMMEN HEISSEN와 ETWAS BEGRÜSSEN이 있다.

화자가 청자의 방문에 대해 “Ich heiÙe Sie herzlich willkommen!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선언문의 선언적 의도는 환영하기라는 행위가 이미 수행된 세계를 의도하는 것이며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 (1) WILLKOMMEN HEISSEN wurde ausgeföhrt. (환영하기가 수행되었다.)
- (2) H wurde von S willkommengeheiÙt. (청자가 환영되었다.)

가 된다. 그리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가 화자의 환영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H wurde willkommengeheiÙt (청자가 환영되었다)’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된 길이가 일치하므로 이것은 선언문이고 willkommenheiÙ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 (3) willkommen heiss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
(Verstandes-Länge)

환영화행의 또 다른 하위유형인 ETWAS BEGRÜSSEN(무언가를 환영하다)은 화자가 청자의 수혜적 행동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르텐-클레프(1991)는 ETWAS BEGRÜSSEN을 BEGRÜSSEN화행과 구분하는데, 그녀는 후자를 정표적 언어행위로 보지 않는다. 쉘/반더베켄(1985)은 *greet*은 명제내용이 없고, 그것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청자에 대한 인지를 공손하게 표현하는 것뿐이므로 정표화행유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제 화자가 “Ich begrüÙe Ihre Entscheidung/Ihr Angebot (나는 당

신의 제안/결정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선언문의 선언적 의도는 환영하기라는 행위가 이미 수행된 세계를 의도하는 것이며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1) ETWAS BEGRÜSSEN wurde ausgeführt. (무엇인가를 환영하기가 수행되었다.)

(2) Etwas wurde begrüßt. (무엇인가⁴⁵⁾가 환영되었다.)

이다. 그리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가 화자의 환영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Etwas wurde begrüßt (청자의 수혜적 행위가 환영되었다)’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된 길이가 일치하므로 이것은 선언문이고 etwas begrüß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3) etwas begrüß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
(Verstandes-Länge)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begrüßen동사는 (4)에서처럼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4) * Ich begrüße, dass Sie mir meine Briefftasche zurückbringen.⁴⁶⁾
(나는 당신에 나에게 서류가방을 가져다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ETWAS BEGRÜSSEN화행의 수행적 표현은 개인적인 의사소통상황이 아닌 공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5.1.4. DANKEN(감사화행)

45) etwas는 청자가 한 수혜적 행위이다.

46) Marten-Cleef(1991: 188)

감사화행은 청자의 수혜적 행위에 대해 화자가 기쁨 대신 감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WILLKOMMEN HEISSEN과 ETWAS BEGRÜSSEN 화행과 구분된다.

감사화행의 표현에 사용되는 동사 danken을 사용해 “Ich danke dir”라고 말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는 감사하기라는 행위가 이미 수행된 세계를 의도하는 것이며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1) DANKEN wurde ausgeführt.(감사하기가 수행되었다)

(2) H_{DAT} wurde von S gedankt. (청자에게 감사되었다)

가 된다. 그리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가 화자의 감사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H wurde gedankt (청자에게 감사되었다)’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된 길이가 일치하므로 이것은 선언문이고 dank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3) dank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Verstandes-Länge)

5.1.5. KONDOLIEREN(애도화행)

애도화행은 마르텐-클레프(1991)가 분류한 동정표명화행 MITLEID BEKUNDEN 해당된다. 동정표명화행은 청자가 당한 불행한 일에 대해 화자가 슬픔과 공감을 표현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불행한 사태의 내용에 따라 다시 유감표명화행 BEDAUERN BEKUNDEN과 애도화행 KONDOLIEREN으로 나뉜다. 전자는 청자가 당면한 사건 또는 상태와 관련되고, 후자는 청자의 가족구성원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애도화행의 표현에 사용되는 동사 kondolieren을 사용해 “Ich kondoliere Ihnen”이라고 말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는 애도하기라는 행위

가 이미 수행된 세계를 의도하는 것이며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 (1) KONDOLIEREN wurde ausgeführt. (애도하기가 수행되었다.)
- (2) H_{DAT} wurde von S kondoliert. (청자에게 애도되었다.)

이다. 그리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가 화자의 애도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청자에게 애도되었다(H wurde kondoliert)’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된 길이가 일치하므로 이것은 선언문이고 kondolier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kondolier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Verstandes-Länge)

5.1.6. SICH ENTSCULDIGEN(사과화행)

사과화행은 화자의 행위로 인해 청자에게 일어난 부정적 결과에 대해 화자 자신이 책임을 느끼며 후회한다는 것을 청자에게 표현하는 행위이다. 사과화행의 표현에 사용되는 동사 sich entschuldigen⁴⁷⁾을 사용해 “Ich entschuldige mich”이라고 말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는 사과하기라는 행위가 이미 수행된 세계를 의도하는 것이며 화자가 의도하는 변화된 세계는

- (1) SICH ENTSCULDIGEN wurde ausgeführt. (사과하기가 수행되었다.)
- (2) H_{DAT} wurde entschuldigt. (청자에게 사과되었다.)

47) Entschuldigung은 용서와 사과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과의 표현은 “Entschuldigen Sie bitte”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가 된다. 그리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가 화자의 사과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H wurde entschuldigt (청자에게 사과되었다)’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된 길이가 일치하므로 이것은 선언문이고 sich entschuldig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3) sich entschuldig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
(Verstandes-Länge)

5.2. 수행동사는 없지만 화행동사가 있는 하위유형

5.2.1. SPOTTEN(조소화행)

조소화행은 화자가 청자가 당한 불행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마르텐-클레프(1991)는 조소화행을 경멸화행 VERHÖHNEN과 구분하는데, 후자는 칠리히(1982)가 평가화행의 한 유형인 부정-부정평가화행⁴⁸⁾으로 분류한 것이다. 경멸화행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결함과 관련하여 청자가 특정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반면⁴⁹⁾, 조소화행에서는 청자에게 발생한 어떤 불행한 사태에 대해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또한 조소화행은 조소적 조언화행 spöttische RATSCHLÄGE⁵⁰⁾과 조소적 주장화행 spöttische BEHAUPTUNGEN⁵¹⁾과도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경우 조언화행과 주장화행의 내용에서 조소적 입장이 부각되긴 해도 이러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발화수반목적은 아니다. 반면에 조소화행은 순간

48) Zillig(1982: 100)

49) Zillig(1982: 194)

50) Marten-Cleef(1991: 224), Einen Kater bekämpft man am besten mit einem Kasten Biermit / Du vermeidest Rotweinflecken, indem du Weißwein trinkst.

51) Marten-Cleef(1991: 224), Bildung hilft zur Klugheit nicht / Irren ist männlich.

적으로 경험하는 기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정표화행이다.

조소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spotten을 사용하여, “Ich spotte über dein Pech(나는 너의 불운을 비웃는다)”라고 발화한다면, 이것의 선언적 의도는 조소하는 행위가 이미 수행된 세계(예시 1)이다. 그런데, 이것은 청자가 조소를 당한 것(예시 2)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조소를 당한 것을 넘어 모욕감을 느끼는 것(예시 3)을 의미하는가?

- (1) SPOTTEN wurde ausgeführt. (조소하기가 수행되었다.)
- (2) H wurde von S gespottet. (청자는 조소를 당했다.)
- (3) H ist beleidigt. (청자는 모욕감을 느낀다.)

여기서 우리는 조소화행의 목적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소화행의 목적은 화자가 청자에게 발생한 어떤 불행한 사태에 대해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청자에게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즉 “Ich spotte”를 선언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의 선언적 의도는 화자의 조소감정이 청자에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약속화행에서는 화자가 약속의 의도로 문장을 발화했을 때, 청자가 그 문장의 축어적 의미 및 의도를 이해해야만 약속이 수행되므로, 약속이 수행되었다는 것이 청자가 약속을 이해했다는 것과 동일한 반면, 조소화행은 꼭 청자에게 그 행위를 이해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조소화행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 (4) H hat SPOTTEN_{Gefühl} erkannt (청자가 조소감정을 인식했다.)

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Verstandes-Länge와 일치하지 않는다⁵²⁾.

물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는 ‘화자가 조소하는 행위’를 이해했으며, 이는 ‘H wurde gespottet (청자는 조소를 당했다)’와 동일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 길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52) Verstandes-Länge가 되기 위해서는, ‘H hat SPOTTEN verstanden’이 되어야 한다.

것은 비선언문이고 spott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3) spott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Verstandes-Länge)

마르텐-클레프(1991)은 조소화행이 명시적 수행발화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청자의 감정과 상반되는 감정의 발화는 의사소통상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조소화행에 대해 상대방이 질타화행 SCHIMPFEN으로 반응할 경우, 화자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명시적 수행발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동사 spotten이 수행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해당되는 설명이다. 사용되지 않는 것과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다르다.

5.2.2. TRIUMPHIEREN(우쭐대기화행)

위에서 우리는 조소화행의 기반이 되는 사태에서 당사자인 청자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만 화자는 청자의 손해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보았다. 반면에, 우쭐대기화행의 기반이 되는 사태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당사자이지만 화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청자는 부정적으로 경험한다. 보통 화자와 청자가 서로 경쟁하는 활동에서 화자가 이득을 보는 사태가 계기가 된다. 그 결과 화자는 청자가 자신과는 반대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쭐대기화행을 통해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다.

우쭐대기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triumphieren을 사용하여, “Ich triumphiere über meinen Sieg (나는 나의 승리를 기뻐한다)”라고 발화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가 의도하는 것은 화자가 우쭐댄다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자가 그 우쭐대는 행위를 이해했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인식했다는 것과 일치한다. 즉, 화자가 의도

하는 것은

- (1) H hat TRIUMPHIEREN_{Gefühl} erkannt (청자가 우쭐대기감정을 인식했다.)

이다. 물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는 ‘화자가 우쭐대는 행위’를 이해했으며, 이는 ‘H_{DAT} wurde triumphiert (청자에게 우쭐되었다)’와 동일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 길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비선언문이고 triumphier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 (4) triumphier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Verstandes-Länge)

5.2.3. FROHLOCKEN(환호화행)

앞에서 다룬 우쭐대기화행에서처럼 환호화행에서도 화자는 그가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태에 대해 기쁨을 표현한다. 그러나 우쭐대기화행에서와는 달리, 이 사태에서의 장본인은 청자가 아니라, 화자 자신 또는 제삼자 또는 비인칭적 사건(예, 날씨)이며, 청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화행의 목적은 화자의 기쁨을 분출하는 것, 즉 즐거운 흥분을 진정시키는 것이며, 청자의 태도는 화행의 성공에 중요하지 않다. 마르텐-클레프는 여기에서 청자의 존재는, 마치 운동경기에서 관객이 있을 때 선수(여기에서는 화자)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Ideenreicher 경기를 수행하는 것처럼, 화자가 순전한 혼잣말을 할 때보다 더 명시적으로 화행을 수행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본다.⁵³⁾

이제, 환호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frohlocken을 사용하여, “Ich frohlocke, dass ich meine Prüfung bestanden habe. (나는 내가 시험에

53) Marten-Cleef(1991: 249)

합격할 것을 환호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Ich erkläre, dass ich frohlocke.”로 환원된다. 이 선언적 발화가 의도하는 것은 환호하는 것, 즉 화자가 기쁨을 분출한다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시험에 붙었다는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청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발화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변화된 세계’는

(1) FROHLOCKEN wurde ausgeführt. (환호하기가 수행되었다.)

인데, 이것은

(2) $H_{(dem)}$ wurde von S gefrohlockt. (청자에게 환호되어졌다.)

와 동일하지 않고, 단지

(3) S hat gefrohlockt. (화자가 환호했다.)

와 동일하다. 결국, 이것은 청자의 인지변화나 상태변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자를 향한 선언적 의도는 없다.

여기까지는 마르텐-클레프의 분류해석을 바탕으로 끌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화자가 혼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로 자신의 감정을 분출을 위해서만 FROHLOCKEN을 발화할까? 이 연구에서는 때로는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고 청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는 경우도 포함시킨다. 그 결과 frohlocken의 선언적 길이는 다음과 같다.

(4) frohlocken: $0 \leq \text{선언적 길이} < \text{인지 변화 길이}$
(Verstandes-Länge)

어느 경우에도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 길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비선언문이고 frohlock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5.2.4. JUBELN(경탄화행)

경탄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jubeln을 사용하여 “Ich juble über dieses Tor! (나는 이 득점에 대해 경탄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Ich erkläre, dass ich juble.”로 환원된다. 이 선언적 발화가 의도하는 것은 경탄한다는 것, 즉 화자가 기쁨을 발산한다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자는 경탄화행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심지어 경탄행위의 동기를 모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또한, 화자는 청자에게 곱이 들어갔다는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청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화자의 의도는 오로지 자신의 기쁨을 분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의도하는 변화된 세계는

(1) JUBELN wurde ausgeführt. (경탄하기가 수행되었다.)

인데, 이것은

(2) H_{DAT} wurde von S gejubelt (청자에게 경탄되어 졌다)

와 동일하지 않고,

(3) S hat gejubelt. (화자가 경탄했다.)

와 동일하다. 결국, 이것은 청자의 인지변화나 상태변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Ich juble”는 청자를 향한 선언적 의도가 없다.

여기까지는 마르텐-클레프의 분류해석을 바탕으로 끌어낸 결과이고 이 연구에서는 JUBELN에 때로는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고 청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는 경우도 포함시킨다. 그 결과 jubeln의 선언적 길이는 다음과 같다.

(4) jubeln: $0 \leq$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 (Verstandes-Länge)

어느 경우에도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 길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비선언문이고 jubel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5.2.5. KLAGEN(원망화행)

원망화행에서 화자는 청자의 행동방식이 자신에게 슬픔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원망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klagen을 사용하여, “Ich klage darüber, dass du mir nicht beim Umzug hilfst(나는 네가 내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걸 원망한다)”라고 발화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가 의도하는 것은 화자가 원망한다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자가 그 원망하는 행위를 이해했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그 원망하는 감정을 인식했다는 것과 일치한다. 즉,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1) H hat KLAGEN_{Gefühl} erkannt. (청자가 원망감정을 인식했다.)

이다. 물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는 ‘화자가 원망하는 행위’를 이해했으며, 이는 ‘H_{DAT} wurde geklagt (청자에게 원망이 되었다)’와 동일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 길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비선언문이고 klag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2) klag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Verstandes-Länge)

5.2.6. SCHIMPFEN(질타화행)

질타화행에서 화자는 자신에게 가치상실을 가져온 청자의 행동에 대해 공격적 형태의 정서적 혐오인 분노를 분출하며 이를 청자에게 인식시키려 한다. 앞서 악담화행에서 언급했듯이, 질타화행에서는 저주하거나 욕하기가 분노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타화행은 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거나 청자를 모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분출하고 그것을 청자에게 인식시키고자 수행된다.

질타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schimpfen을 사용하여, “Ich schimpfe mit dir!”라고 발화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가 의도하는 것은 화자가 질타하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자가 그 질타하는 행위를 이해했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인식했다는 것과 일치한다. 즉,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1) H hat SCHIMPFEN_{Gefühl} erkannt (청자가 질타감정을 인식했다.)

이다. 물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는 ‘화자가 질타하는 행위’를 이해했으며, 이는 ‘H wurde geschimpft (청자가 질타를 당하다)’와 동일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 길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비선언문이고 schimpf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2) schimpfe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Verstandes-Länge)

5.2.7. KRITTELN(빈정대기화행)

빈정대기화행에서 화자는 청자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질투를 표현한다. 그런데 이 감정은 겉으로 직접적으로 들어나지 않게 감추면서 대신 그 기반이 되는 사태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비꼬아 표현한다. 그래서 (1)과 같은 표현은 오히려 친한 사이에서 하는 찬사로 볼 수 있다.

(1) ? Ich beneide dich (um ein solches Haus)! (그런 집을 사다니 질투난다!)

그러므로 빈정대기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kritteln*을 사용하여 명시적 수행문이 가능한가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행문 가능성을 선언문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 동사 *kritteln*을 사용하여 “Ich krittelle, dass du ein solches Haus gekauft hast. (나는 네가 집을 산 것에 대해 빈정댄다)”라고 발화한다면, 이 선언적 발화가 의도하는 것은 화자가 빈정댄다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자가 그 빈정대는 행위를 이해했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인식했다는 것과 일치한다. 즉,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2) H hat KRITTELN_{Gefühl} erkannt. (청자가 빈정대기감정을 인식했다.)

이다. 물론 실제 발화 세계에서 청자는 ‘화자가 빈정대는 행위’를 이해했으며, 이는 ‘H_{DAT} wurde triumphiert (청자에게 빈정대어 졌다)’와 동일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 길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비선언문이고 *krittel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3) *kritteln*: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Verstandes-Länge)

5.2.8. JAMMERN(한탄화행)

한탄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jammern을 사용하여, “Ich jammere darüber, dass ich das Manuskript nicht finden kann.(나는 내가 서류를 찾을 수 없음을 한탄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Ich erkläre, dass ich jammere.”로 환원된다. 이 선언적 발화가 의도하는 것은 화자가 슬픔을 분출한다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자는 한탄화행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심지어 한탄행위의 동기를 모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더구나,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청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화자의 의도는 오로지 자신의 슬픔을 분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의도하는 변화된 세계는

(1) JAMMERN wurde ausgeführt. (한탄하기가 수행되었다.)

인데, 이것은

(2) H_{DAT} wurde gejammert. (청자에게 한탄되어 졌다.)

와 동일하지 않고,

(3) S hat gejammert. (화자가 한탄했다.)

와 동일하다. 결국, 이것은 청자의 인지변화나 상태변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Ich jammere“는 청자를 향한 선언적 의도가 없는 비선언문이고 jammer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마르텐-클레프의 분류해석을 바탕으로 끌어낸 결과이고 이 연구에서는 JAMMERN에 때로는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고 청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는 경우도 포함시킨다. 그 결과

jammern의 선언적 길이는 다음과 같다.

$$(4) \text{ jammern: } 0 \leq \text{선언적 길이} < \text{인지 변화 길이} \\ (\text{Verstandes-Länge})$$

어느 경우에도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 길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비선언문이고 jammer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5.2.9. FLUCHEN(욕설화행)

마르텐-클레프의 정의에 따르면 이 유형은 화자가 자신이나 제삼자의 행동방식, 또는 자연현상 같은 비인칭적 원인 때문에 발생한 화를 분출하기 위해 수행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동기가 되는 사건은, 질타화행에서와는 달리, 청자에게 책임이 없다. 키너(Kiener, 1983)의 견해를 인용하자면, “이러한 형태의 구어적 공격성은 화자 안에 막혀있는 감정용어를 배출할 출구를 만들어 화풀이를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긴장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⁵⁴⁾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의사소통상대가 없어도 일어날 수기 때문에 욕설화행은 ‘독백적인 질타화행’⁵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욕설화행을 지칭하는 동사 fluchen을 사용하여, “Ich fluche über diesen Stau! (나는 이 교통정체에 대해 욕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Ich erkläre, dass ich fluche.”로 환원된다. 이 선언적 발화가 의도하는 것은 화자가 화를 분출한다는 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자는 욕설화행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심지어 욕설행위의 동기를 모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더구나, 화자는 청

54) Kiener(1983: 225) in Marten-Cleef(1991: 332)

55) Sornig(1975: 152) in Marten-Cleef(1991-332), 소르니히는 FLUCHEN과 SCHIMPFFEN의 수행에서 이들의 대화상황이 다를 뿐 아니라, 발화수반 목적도 다르다고 보았다.

자에게 차가 막힌다는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청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화자의 의도는 오로지 자신의 화를 분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1) FLUCHEN wurde ausgeführt. (욕설하기가 수행되었다.)

인데, 이것은

(2) H_{DAT} wurde geflucht (청자에게 욕설되어 졌다.)

와 동일하지 않고,

(3) S hat geflucht. (화자가 욕설했다.)

와 동일하다. 결국, 이것은 청자의 인지변화나 상태변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Ich fluche“는 청자를 향한 선언적 의도가 없는 비선언문이고 fluch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마르텐-클레프의 분류해석을 바탕으로 끌어낸 결과이고 이 연구에서는 FLUCHEN에 때로는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고 청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는 경우도 포함시킨다. 그 결과 fluchen의 선언적 길이는 다음과 같다.

(4) fluchen: $0 \leq$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 (Verstandes-Länge)

어느 경우에도 선언적 길이와 실제 변화 길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비선언문이고 fluch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5.3. 수행동사 및 화행동사 자체가 없는 하위유형

5.3.1. KOMPLIMENT(찬사화행)

마르텐-클레프(1991)는 찬사화행을 칭찬화행 LOBEN과 구분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그가 특정 규범체계 안에서 이루어낸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크다. 반면에 찬사화행은 청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소유물에 대해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침화행처럼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나, 칭찬화행처럼 화자의 행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셀에 의하면, 찬사되는 주제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청자의 영웅적이거나 희생적인 행동처럼, 반드시 화자 자신에게 좋은 것일 필요는 없다.⁵⁶⁾

독일어 명사 *Kompliment*는 영어 *compliment*에서 차용되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compliment*가 동사와 명사로서 각각 ‘찬사하다’와 ‘찬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일어 동사 *komplimentieren*은 아직 ‘찬사하다’라는 의미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영어에서는

(1) I compliment you on your deftness of foot.

와 같은 수행문이 가능한 반면, 독일어에서는

(2) * Ich komplimentiere Sie über Ihre Geschicklichkeit.⁵⁷⁾

(3) * Ich mache Ihnen ein Kompliment über Ihre Geschicklichkeit.⁵⁸⁾

는 가능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표현들만 가능하다.

56) Searle/Vanderveken(1985: 215)

57) (Marten-Cleef, 1991: 134)

58) (Marten-Cleef, 1991: 134)

- (4) Ich würde Ihnen mein Kompliment darüber aussprechen, wie gut Sie mit dem Computer zurechtkommen.⁵⁹⁾
- (5) Mein Kompliment zu Ihrer Leistung.⁶⁰⁾

이는 *komplimentieren*이 ‘찬사하다’라는 의미를 획득하고, 화행지칭동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행동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3.2. GUNSTERWEIS(호감표시화행)

마르텐-클레프(1991)는 호감표시화행과 찬사화행을 구분하면서, 후자는 청자의 특성이나 소유물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전자는 사람으로서의 청자에 대한 화자의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본다. 호감표시화행에는 화행지칭동사가 따로 없고, 흔히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호감이 표현된다.

- (1) Ich liebe dich! (사랑해!)
- (2) Du bist mein süßes kleines Pürzelhäschen.(넌 나의 작고 귀여운 아기토끼야)
- (3)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마르텐-클레프(1991)는 호감표시화행을 사랑고백화행 LIEBEGESTÄNDNIS이나 사랑맹세화행 Beteuern von Liebe과 혼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정보전달과 함께 청자와의 어떤 중요한 관계사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단언화행에 속하는

59) (Marten-Cleef, 1991: 135)

60) (Marten-Cleef, 1991: 135)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호감에는 여러 감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⁶¹⁾⁶²⁾ 호감표시화행에는 사랑(1,2)과 존경(3)만이 흔히 표현된다.

그런데 여기서 명시적 감정표현인 “Ich liebe dich”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발화가 수행적이기 위해서는 LIEBEN 화행이 존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발화는 단지 화자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서술적 형식의 표현이다. 생성 인류학자 에릭 갠스(Erick Gans, 1995)는 ‘Ich liebe dich’가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구어적으로 쓰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 자발적인 결혼이 보장되고 이어서 자유연애가 허락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지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Ich liebe dich’는 더 이상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표현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표현은 이성 간의, 그리고 부모자녀친구간의 애정표현을 넘어, 이제는 단순히 상업적인 친밀감을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기업의 전화상담원도 고객에게 “사랑합니다”를 외친다. 이러한 추세는 머지않아 동사 lieben의 의미에 ‘(사회적 기대에 따라) 호감을 표현하다’는 뜻이 더해질 수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만약 그럴 경우, LIEBEN 화행이 생기게 되므로, “Ich liebe dich”는 “Ich erkläre, dass Ich dich liebe”라는 선언문의 명제내용이 되고, 이 선언문의 의도는 호감으로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청자가 화자의 사랑하는 행위, 즉 호감을 표현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 화행은 수행이 될 것이며, lieben은 수행동사가 될 것이다.

존경을 표현하는 동사 verehren의 경우는, 위에서 본 것처럼

61) Schmidt-Atzert(1980: 62), in Marten-Cleef(1991: 196)에 따르면 기본적인 호의적 감정에는 Dankbarkeit, Liebe, Verehrung, Wohlwollen, Zärtlichkeit, Zuneigung이 있다.

62) Meer(1985: 10), in Marten-Cleef(1991: 196)은 “긍정적인 관계감정”으로 존경(Verehrung), 호의(Wohlwollen), 신뢰(Vertrauen), 사랑(Liebe), 호의(Zuneigung), 신임(Zutraue)을 꼽는다.

(4)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은 가능하지만,

(5) *Ich verehere Sie, meine Damen und Herren.

은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Ich liebe dich'라는 표현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 이 표현이 우연히 사회적 유행을 통해 구어적으로 충분히 많이 쓰이게 되고, 동사 verehren이 '(사회적 기대에 따라) 존경을 표현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면, VEREHREN 화행이 생기게 되고, verehren은 수행 동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3.3. ANTIPATHISCHER WUNSCH(악담화행)

악담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미래에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행위이다. 마르텐-클레프(1991)는 이것을 청자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비관화행 SCHWARZMALEN과 구분하는데, 후자는 칠리히(1982: 192)에 따르면 평가화행에 속하는 것으로서 화자는 청자의 어떤 미래행위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의 믿음을 암시하거나, 청자가 하려던 어떤 행위를 단념하게 만들고자 한다.⁶³⁾ 또한 악담화행은 예언화행 VORAUSSAGEN과도 구분되는데, 이것은 미래사건에 대해 근거 있는 주장을 하는 단언화행이다.⁶⁴⁾ 마르텐-클레프(1991: 237)에 따르면, 이들 모두는 화자가 미래에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청자에게 암시하는 반면, 악담화행은 화자가 미래에 사실이길 *바라*는 것을 청자에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3) 예) Ich sage dir, eure Ehe hält sowieso nur ein Jahr. (Marten-Cleef, 1991: 237)

64) Rolf(1983: 157), in Marten-Cleef(1991: 237), 예) Diese Ehe endet mit einem Fiasko. (Marten-Cleef, 1991: 237)

마르텐-클레프는 악담화행이 흔히 저주하기 Verwünschung와 혼동하기 쉽다고 하면서, 저주하기는 화행유형이 아니라 청자에 의해 화자의 가치가 상실되는 사건이 기반이 되어 화자 자신의 화, 분노, 미움 등의 공격적 감정을 청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됨을 강조한다. 이것은 주로 화자 혐오 정표화행유형들에서 사용되는데, 흔히 (1)처럼 명제내용이 비현실적인 기원문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한다.

(1) Ich wünsche dir die Pest an den Leib! (역병에 걸려라!)

키너(1983: 220)는 이것을 분노폭발의 부수현상이라 주장하면서, 실제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도와 믿음을 갖는 진짜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상-공격 Phantasie-Aggressionen으로 본다. 그러므로 저주하기는 희망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비해, 악담화행의 기반이 되는 사태에서는 저주하기에서와는 달리 화자 자신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으며, 주로 청자가 화자에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거라고 미리 알리거나, 그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꺼려지거나,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올까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화자는 그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청자와 제삼자가 운동시합을 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가 진다는 것을 두고 내기를 할 때, 청자가 진다면 청자 자신에게는 안 좋지만 화자에게는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 경우 화자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악담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2) Ich wünsche dir, dass du ordentlich eins auf die Nase bekommst! (한방 제대로 얻어 맞길!)

(3) Ich hoffe, dass Sp3 dich besiegt! (Sp3가 널 쓰러트리길!)

그런데 마르텐-클레프는 (2)와 같은 경우를 수행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⁶⁵⁾, 이것은 잘못된 설명으로 보인다. 이미 5.1.2장에서 밝혔듯이, 동사

wünschen의 의미에는 ‘좋은 것’을 바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4) * Ich wünsche dir ein erbärmliches/erfolglises neues Jahr!

같은 표현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3)의 경우는 일종의 수사학적 표현으로서, 아래의 (5)에서처럼 단지 감정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Ich hoffe, dass Spe dich besiegt! (Sp3가 널 쓰러트려 버리길!)

확실히, 악담화행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가 불운을 바라는 행위’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6) wünschen_(악담화행에서):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
(Verstandes-Länge)

동사wünschen이 악담화행의 수행동사가 될 가능성은 낮다. 일단 기원화행 WÜSCHEN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5.3.4. HOFFNUNG ÄUSSERN(희망표현화행)

마르텐-클레프(1991)의 정표화행 하위유형에서 화자가 미래 상황과 관련된 희망감정 Hoffnungsgefühle을 표현하는 화행은 모두 세 개인데, 각각 공감적 유형인 기원화행, 반감적 유형인 악담화행, 그리고 진정적

65) Marten-Cleef(1991: 241)

유형인 희망표현화행이다. 앞의 두 화행들에서는 화자의 바람이 청자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희망표현화행에서 화자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태에 대한 바람을 표현한다. 희망표현화행에서의 바람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것, 또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이미 일어난 것이라면 계속 유지되지 않길 바라는 것일 수 있다. 기원화행이나 악담화행에서와 다르게, 희망표현화행에서는 청자 쪽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데, 왜냐하면 화자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바람을 청자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발화수반목적은 순전히 화자 자신의 희망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것, 그러면서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희망표현화행에는 화행지칭동사가 따로 없으며, 흔히 다음과 같은 형태로 희망이 표현된다.

(로또숫자를 뽑으며)

- (1) Ich hoffe, dass ich die Millionen gewinne! (수백만에 당첨되길!)
- (2) Hoffentlich habe ich auch einmal sechs Richtige!(나도 한번쯤은 숫자 여섯 개가 다 맞길!)
- (3) Ich wünsche mir sechs Richtige!(숫자 여섯 개가 다 맞길!)

그런데, 마르텐-클레프(1991)는 (3)에서 동사 wünschen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화가 수행문이 아니라 단지 서술적인 명시적 감정표현이라는 것을 간파한다. 그녀는 “동사 wünschen이 여기서 는 기원화행과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바람을 표현하다’가 아니라 ‘바람을 가슴 속에 품다(einen Wunsch hegen)’로 해석 된다”고 하면서, “희망표현화행에서는 이해의도(Verständigungsabsicht)가 적어서(so gering), 수행된 행위 유형에 대한 명시적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제 이것을 본 연구의 이론에 따라 설명한다면, 선언문으로서의 “Ich wünsche mir sechs Richtige”에서 동사 wünschen의 의미는 청자에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자 자신에게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청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선언문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변화된 세계는

(4) Wünschen_(희망표현화행에서) wurde ausgeführt. (희망표현하기가 수행되었다.)

인데, 이것은

(5) H_{DAT} wurde gewünscht. (청자에게 희망이 표현되었다.)

와 동일하지 않고, 단지

(6) S hat gewünscht.(화자가 희망을 표현하였다.)

와 동일하다. 결국, 이것은 청자의 인지변화나 상태변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Ich wünsche“는 청자를 향한 선언적 의도가 없는 비선언문이고 wünschen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7) wünschen_(희망표현화행에서): 선언적 길이 ≠ 인지 변화 길이
(Verstandes-Länge)

5.3.5. BEDAUERN BEKUNDEN(유감표명화행)

유감표명화행에서 화자는 청자가 겪은 부정적인 사태에 대해 화자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청자에게 알림으로써 양자 간에 공감을 형성하려 한다. 의사소통목적에 있어서는 애도화행과 동일하지만, 애도화

행은 청자의 가족구성원의 죽음이 동기가 되는 반면, 유감표명화행은 화자가 청자의 불운 또는 실패라고 평가하는 모든 사건들이 동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자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청자가 비 때문에 휴가를 망치거나,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친 경우에 유감표명화행으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유감표명화행에는 화행지칭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화행 이름은 명사적 표현으로 명명되는데, 흔히 유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 (1) Es tut mir leid! (그거 안됐군요!)
- (2) Ich bedauere dich aufrichtig. (정말 유감이야.)

이미 말한 대로, 유감표명화행은 명사 Bedauern을 가지고 명명되는데, 이 화행을 “BEDAUERN“화행으로 명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3)에서처럼 동사 bedauern의 의미 중에는 “유감을 표현하다”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3)⁶⁶bedauern: a. 누군가에게 동정을 느끼다
- b. 무엇인가를 불쾌하게, 애석하게 여기다.

또한, (4a)와 (4b)처럼, bedauern의 dass절의 주어가 화자 자신인 경우는 사과화행의 표현이 되어 버린다.

- (4) a. Ich bedauere, dass ich nicht dabei sein konnte. (제가 거기 참석하지 못한 거 미안해요.)
- b. Ich bedaure, ich habe keine Zeit. (미안해, 시간이 없어.)

물론, 동사 bedauern의 의미에 ‘유감을 표현하다’가 추가된다면

66) a. Mitgefühl mit jemandem empfinden; jemanden bemitleiden
 b. unerfreulich, schade finden (DUDEN Wörterbuch)

BEDAUERN 화행이 생기게 되므로 “Ich bedauere dich”는 “Ich erkläre, dass Ich dich bedauere”라는 선언문의 명제내용이 되고, 이 선언문의 의도는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청자가 화자가 유감을 표현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 화행은 수행이 될 것이며, bedauern은 수행동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bedauern이 그렇게 쓰이길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마르텐-클레프(1991)가 지적한 대로, 유감표명화행과 애도화행은 원래 하나의 상위화행인 동정표명화행으로 묶을 수 있다.

동정표명화행

유감표명화행

애도화행

그런데 이 중 애도화행이 kondolieren이라는 수행동사를 가진 독립적 유형으로 분리된 이유는 이 화행의 기반이 되는 사태가 “청자의 가족 구성원의 죽음”으로 뚜렷이 세분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화행의 사용이 매우 의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애도를 표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애도를 표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생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에 비하면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그로 인해 bedauern이 수행동사가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5.3.6. SORGE BEKUNDEN(염려표명화행)

염려표명화행에서 화자는 미래에 청자가 겪을 부정적인 사태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한다. 물론 비관화행 SCHWARZMALEN처럼 미래에 청자

가 부정적인 사태를 겪을 거라고 화자 자신이 믿는 것을 알리려는 것도, 청자가 어떤 행위를 가계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염려표명화행에는 화행지칭동사가 따로 없고, 흔히 염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 (1) Ich mache mir Sorge, dass du viel Geld verlierst. (난 네가 큰돈을 잃을 까봐 걱정이 돼.)
- (2) Ich hoffe nicht, dass du krank wirst! (난 네가 아프길 바라지 않아.)

염려표명화행은 명사 Sorge를 가지고 명명되는데, 이 화행을 ‘SORGEN’ 화행으로 명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사 sorgen의 의미 중에는 ‘염려를 표현하는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BEDAUERN 화행이 만들어 질 가능성을 낮게 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염려하는 행위는 죽음을 애도하는 것만큼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므로 의례적으로 염려하는 행위만 보이고자 사회적 요구는 커질 것 같지 않다. 아니면 그 반대로 LIEBEN 화행의 가능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염려하는 행위를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경박하게 수행하려고 한다면 SORGEN 화행이 생길 것이고 동사 sorgen은 수행동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5.3.7. ANGST ÄUSSERN(걱정표명화행)

걱정표명화행은 5.3.5장의 희망표명화행에 부정적으로 상응한다. 즉, 후자에서는 화자가 자기에게 다가올 사태를 긍정적인 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는 반면에, 여기에서 화자는 자신과 관련된 미래 사태를 자신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불안을 표현한다. 이 유형의 발화수반목적은 순전히 화자 자신의 걱정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것,

그러면서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걱정표현화행에는 화행지칭동사가 따로 없으며, 흔히 다음과 같은 형태로 걱정이 표현된다.

(구술고사에 들어가기 전에)

(1) Ich habe vielleicht eine Angst (vor diesem Gespräch!) (너무 무서워!)

(2) Mir ist angst und bange zumute!. (무섭고 불안한 기분이 들어!)

걱정화행의 수행동사 가능성을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던 한탄화행이나 욕설화행처럼 순전히 화자의 감정분출이 발화목적인 걱정화행이 앞으로 보여주기 식의 행위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5.4. 분석결과

지금까지 분석한 총 22개 하위유형 중 수행동사를 가지고 있는 유형은 모두 6개였으며 이들은 모두 마르텐-클레프가 분류한 공감적 정표화행 Sympathisierende EXPRESSIVA에 속한다. 이들이 수행동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들 동사들의 선언적 의도가 모두 청자에게 ‘그 언어행위’를 이해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청자가 화자의 언어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단언화행이나 지시화행, 또는 위임화행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들 화행에서 ‘그 언어행위’란 화자가 주장이나, 명령이나, 약속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청자가 그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그 행위의 수행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표화행에 적용되었을 때, ‘그 언어행위’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이고 그러므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그 정표화행의 수행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화자의 실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화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

다. 놀라울 것도 없이 이들 6개 유형 모두는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행위들이었다.

화행동사가 있는데도 수행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유형은 모두 9개였는데 이 중 5개는 반감적 정표화행 *Opponierende EXPRESSIVA*, 4개는 진정적 정표화행 *Abreagierende EXPRESSIVA*이었다. 이들이 수행동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반감적 유형의 경우 그것의 선언적 의도가 청자로 하여금 ‘그 언어행위’가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 인식은 실제 발화 과정에서 우리가 언어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장될 수 없으므로 결국 선언문의 이중질이 일치할 수 없다. 진정적 유형들의 경우 이들 동사에는 청자와 관련된 선언적 의도가 없거나 기껏해야 청자에게 화자의 감정을 인식시키는 것이므로 선언문이 될 수 없다.

화행동사가 없는 유형은 모두 7개였는데, 각각 공감적 유형은 4개, 반감적 유형은 1개, 진정적 유형은 2개였다. 이 중 *KOMPLIMENT*는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행동사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화행이 영어에서 차용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komplimentieren*이 ‘찬사하다’라는 의미를 획득하고, 화행지칭동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행동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공감적 유형들이 수행동사를 갖고 있는데도 *GUNSTERWEIS*에 수행동사가 없는 이유는 이 언어행위가 아직까지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유형의 표현방식 중 하나인 *lieben*동사는 머지않은 미래에 수행동사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왜냐하면 진짜 사랑의 숭고한 면을 모방하여 이용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BEDAERN BEKUNDEN*의 경우는 이미 죽음과 같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KONDOLIEREN* 화행이 의례적으로 동정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대방의 불행에까지 의례적으로 동정을 표명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그로 인해 *bedauern*이 수행동사가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KONDOLIEREN*의 경우는 피상적인 감정표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

려 죽음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특별한 예우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수행동사는 모두 공감적 유형들만 가지고 있고, 현재 수행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앞으로 갖게 될 가능성도 공감적 유형에서 발견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표화행이 수행동사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화행이 정작 감정보다는 그것을 수행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진정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쉼의 정의에 따르면 정표화행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발화의 목적이 청자에게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이해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화자의 감정 자체’를 인식시키는 것인가이다.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청자가 이해하는 것이 그 언어행위의 수행과 동일하다면, 화자가 정말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에 비해 청자가 ‘화자의 감정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그 언어행위의 수행과 동일하다면, 그 언어행위의 목적은 화자가 남을 의식해 그 언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수행문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견해들 중 수행문을 선언문으로 보는 쉘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선언문으로서의 수행문이 갖는 말과 세상의 이중적 일치방향을 개념화하기 위해, 언어행위가 수행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청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였다.

선언화행의 발화에 의해 세상에 새로운 사실이 만들어 진다는 정의를 역으로 생각하면, 발화가 만들어 내려고 의도하는 새로운 사실과 실제 발화 세계에서 만들어진 사실이 일치할 때 그 발화는 선언적 발화가 될 수 있다. 선언문으로서의 수행문은 청자를 향해 발화되며 그것을 통해 만들려는 새로운 사실은 청자와 관련된 변화이다. 청자와 관련된 변화는 청자의 인지변화 또는 상태변화이다. 수행문을 통해 청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수행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실제 발화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자의 변화는 물리세계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일치하여 수행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동사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수행동사가 될 수 있는 동사의 조건은 첫째, 동사의 의미에 청자와 관련된 전달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달 의도가 없다면 그 동사의 선언적 의도가 없는 것이므로 선언문의 이중길이가 성립할 수조차 없게 된다. 둘째, 동사의 의미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그 발화를 이해시키려는 것 이상 또는 이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제 물리세계에서 순전히 우리의 발화와 동시에 생길 수 있는 사실은 화자가 그 발화를 이해했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해했다는 의미는 의사소통 메커니즘에서 보여주는 발화행위의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인 발화수반행위는 청자가 그 발화를 이해한 것이 곧 그 언어행위의 수행이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일 뿐이다. 그런데 발화로 물리세계 법칙을 벗어나는 사실을 만들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직 제도적 장치

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수행동사가 될 수 없는 동사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발화를 이해시키려는 것 이상 또는 이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감정이 개입된다. 즉 청자의 인지변화를 넘어 감정상태의 변화를 의도하거나 단지 화자의 감정을 인식시키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물리적 발화에서 우리의 발화를 가지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 결과 선언문의 이중길이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선언문이 성립되지 않고 이들은 수행동사가 될 수 없다.

본 연구의 설명방식에 따르면 모든 동사는 잠재적으로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현재 수행동사가 아닌 동사도 사회적 요구와 관습에 의해 동사의 의미가 바뀌어 선언적 의도가 실제 세계에서 변화 가능한 사실을 의도하게 되면 수행동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문의 기제를 설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행동사의 사용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설명방식을 수행가능성 이론 Performabilitätstheorie이라고 명명했다.

순전히 감정을 분출하는 언어행위들은 수행동사가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화행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받아왔는데, 마르텐-클레프는 이러한 감정분출을 위한 언어행위도 화행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포함시켜 정표화행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수행가능성 이론에 따라 마르텐-클레프의 정표화행 하위유형들에서의 수행동사 및 수행동사 사용가능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첫째, 정표화행이 단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제는 발화의 목적이 청자에게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이해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가에 있었다.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청자가 이해하는 것이 그 언어행위의 수행과 동일하다면, 화자가 정말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둘째, 순전히 감정분출을 목적으로 갖는 발화수반행위는 이론적으로는 그 행위의 결과를 보장받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발화수반행위에는 발화를 통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

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청자의 인지변화를 의도하는 행위와 둘째, 청자의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행위, 그리고 셋째, 청자에게 화자의 감정을 인식시키려는 행위들이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발화수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자의 인지변화가 목적이므로 발화를 가지고 그것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두 번째는 청자에게 영향을 주어 인지변화 이상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로서 그 목적달성은 발화로 보장받을 수 없다. 이들은 소위 발화영향행위에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청자에게 화자의 감정을 인식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데, 이것의 결과도 발화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전통적인 발화수반행위 정의에서는 세 번째 유형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이는 오랫동안 발화수반행위는 관습 따르기처럼 수행되는 행위에 제한되었고 감정분출을 위한 언어사용은 발화수반행위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화의도를 갖는 모든 발화행위를 발화수반행위로 보려한다면, 이들 중 발화를 통해 발화목적의 달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창우 (2003): 『화용론』. 독일어의 구조와 의미. 역락. 323-367.
- 이혜용 (2015): 한국어 정표화행 연구. 정표화행의 유형 분류와 수행 형식. 역락.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 Bach, K./Harnish, R. M. (1979):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Cambridge.
- Bach, K. (1992): *How Performatives Really Work: A Reply to Searle*. *Linguistics and Philosophy* 15(1). 93-110.
- Bierwisch, M. (1980): *Semantic structure and illocutionary force*, in J. R. Searle, F. Kiefer and M. Bierwisch (eds),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s*. Reidel, Dordrecht. 1-35.
- Condoravdi, C./Lauer, S. (2011): *Performative verbs and performative acts*. in I. Reich, E. Horch and D. Pauly (eds), *Sinn and Bedeutung 15: Proceedings of the 2010 Annual Conference of the Gesellschaft für Semantik*. Saarbrücken. 149 - 164.
- Condoravdi, C. (2013): *Toward a Null Theory of Explicit Performatives*. Seminar Series on Semantic Content. Oxford.
- Lauer, S. (2015): *Speech-act operation vs. extra-compositional conventions of use. What are the issues?* Speech Act Workshop. ZAS Berlin.
- Hindelang, G (2000): *Einführung in die Sprechakttheorie*. 3. unveränderte Auflage. Tübingen.
- Kainz, F.(1962): *Psychologie der Sprache. Bd. 1: Grundlagen der allgemeinen Sprachpsychologie*. Stuttgart. In Marten-Cleef(1991: 39)
- Kiener, Franz: 1983, *Das Wort als Waffe. Zur Psychologie der verbalen Aggression*. Göttingen, 225, in Marten-Cleef (1991:

332).

- König, P/Wiegers, H (1992): *Sprechakttheorie*. Münstersches Logbuch zur Linguistik.
- Ginet, C. (1979): *Performativity*. Linguistics and Philosophy 3(2). 245 - 265.
- Graffe, J. (1990): *SICH FESTLEGEN und VERPFLICHTEN. Die Untertypen kommissiver Sprechakte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Münster/New York.
- Grewendorf, G/Hamm, F./Sternefeld, W. (1987): *Sprachliches Wissen. Eine Einführung in moderne Theorien der grammatischen Beschreibung*. Frankfurt a. M..
- Heringer, H. J. (2002): *Eine Beleidigung! Ein paar linguistische Überlegungen*. In Sprache und Recht. 305ff
- Hindelang, G. (1978): *AUFFORDERN. Die Untertypen des Aufforderns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Göppingen.
- Hindelang, G. (1980): *Zur Klassifikation der Fragenhandlungen*. In Sprache: Verstehen und Handeln. Akten des 15. Linguistischen Kolloquiums Münster. Tübingen. 215-225.
- Marten-Cleef, S. (1991): *GEFÜHLE AUSDRÜCKEN. Die expressiven Sprechakte*. Göppingen.
- Meer, U. (1985): *Was meinen Wir, wenn wir von Gefühlen reden? Zur psychologischen Textur von Emotionswörtern*. In: Sprache & Kognition 4/1. 2-20. In Marten-Cleef(1991: 196).
- Meibauer, J (2001): *Pragmatik. Eine Einführung*. Tübingen.
- Norrick, Neal R. (1978): *Expressive Illocutionary Acts*. Journal of Pragmatics 2. 277-291.
- Rolf, E. (1983): *SPRACHLIECHE INFORMATIONSHANDLUNGEN*. Göppingen. In Marten-Cleef(1991: 237).
- Schmidt-Atzert, L. (1980): *Die verbale Kommunikation von*

- Emotionen: Eine Bedingungsanalys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hysiologischer Prozesse.* Diss., Gießen. In Marten-Cleef(1991: 196).
- Schäfer, H./Simon, U (2017): *Besser hören: Was Musiker darüber wissen sollten.* Tastenwelt.
<https://www.tastenwelt.de/lesen/news/besser-hoeren/>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 Searle, J. R. (1982): *Ausdruck und Bedeutung: Untersuchungen zur Sprechakttheorie.* Frankfurt/M.. Suhrkamp. 65ff.
- Searle, J. R. (1983):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 Searle, J. R./Vanderveken, D (1985): *Foundations of illocutionary logic.* Cambridge.
- Searle, J. R. (1989): *How performatives work.*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5). 535 - 558.
- Sornig, K. (1975): *Beschimpfungen.* In: Grazer Linguistische Studien 1. 150-170. In Marten-Cleef(1991-332),
- Staffeldt, S (2009): *Einführung in die Sprechakttheorie. Ein Leitfaden für den akademischen Unterricht.* 2. Auflage. Stauffenburg.
- Wierzbicka, A. (1987): *English Speech ACT Verbs: A Semantic Dictionary.* Sydney.
- Wittgenstein, L. (1977):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Frankfurt a. M.. In Marten-Cleef(1991: 36)
- Zillig, W. (1982): *Bewerten. Sprechakttypen der bewertenden Rede* Tübingen.

Zusammenfassung

Der Mechanismus
performativer Sätzen und die
Verwendungsmöglichkeit
performativer Verben
– Von den Typen expressiver
Sprechhandlungen –

Chung, Ilmi

Ausgehend von dem Standpunkt Searles, dass Performative als Deklarationen anzusehen sind,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den Mechanismus der Performative zu erklären und die Verwendungsmöglichkeit der performativen Verben zu untersuchen, und zwar der Typen expressiver Sprechhandlung von Marten-Cleef. Der Sprecher äußert an dem Adressaten eine Performative als

Deklarationen und damit beabsichtigt er eine neue Tatsache hervorzubringen, die eine auf den Adressaten bezogene Veränderung ist. Sie könnte die Verstandesveränderung oder Zustandsveränderung von dem Adressaten.

Die Absicht, eine auf den Adressaten bezogene Veränderung hervorzubringen, wird bestimmt von der wörtlichen Bedeutung des Verbs, das in jenem performativen Satz vorkommt. Und die Veränderung, die in der wirklichen Äußerungswelt hervorgerufen werden kann, unterliegt dem Naturgesetz.

Um performative Verben zu sein, soll ein Verb folgende Bedingungen erfüllen:

1) Ein Verb soll die Kommunikationsabsicht haben, sonst hat es keine deklarative Intention und damit kann die deklarative doppelte Entsprechungsrichtung nicht zustande kommen.

2) Die Bedeutung eines Verbs soll nicht mehr oder less Intention enthalten als diejenige, den Adressaten die Äußerung verstehen zu lassen, denn die Tatsache, die in der wirklichen Welt durch unsere Äußerungen hervorgerufen werden kann, ist nur die diejenige, dass der Adressat die Äußerung verstanden hat.

Die vorliegende Arbeit nimmt an, dass alle Verben potenziell die Möglichkeit haben, performative Verben zu werden.

**keywords : Performativ, Deklarationen, Expressiva,
Verstandesveränderung, Gefühle Erkennen**
Student Number : 2016-25238